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74 1982년3월1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rch 1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MAR 1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

미국인 캐나다은행예금증가
양국 세무정보교환 난항

미국인들이여 캐나다 은행에 예금하라.

캐나다 정부는 사상처음으로 금년부터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미국국세청(IRS : 인터널·레비뉴 서비스)에 미국인들의 이자소득을 통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IRS도 보복적으로 캐네디안들의 미국은행 예금액과 이자소득에대한 정보를 캐나다 세무당국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RS는미국인들의 캐나다은행 예금이자 사항을 체크할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그러나캐나다 국세청의 정책및 규제담당 웨슬리·스톤햄차장은 IRS의 특별요청을 받으면 캐나다 국세청이 조사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토온햄 차장은 캐나다가 예금자의 이자액을 발표하지 않기로한 것은 세무 행정상의 결정이지 정치, 외교상의 결정은 아니라고밝혔다.

캐나다 국세청 세무담당 제랄드·맥킨타이어씨는 양국 국세청 간에는 협조가 거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아가라강을 경계로 미국「버팔로」와 마주보고 있는 캐나다「포트·이리」의 노바스코시아은행 미화 예금액은 1,500만달러가 넘는다.이 액수는 작년 이은행이 21%의 이자율을 제공했을때보다 2배가되는액수로 현재 이자율은 14%이다.미국서부터 탈세목적의 예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의 가장 큰 은행인「로얄뱅크」의 작년도 외국인 예금액 총계는 380억달러에 달했다.이중 가장 큰것은 미화예금 액이었다.

이자가 미화로 지불되는 미국달러 계정은 캐나다서도 비과세 대상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새 세무협정은 작년에 캐나다하원을 통과했으나 아직도미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있다.

논쟁이된 협정의 주요골자는 양국이 세무에관한특정정보는 교환하나 예금이자 소득정보는 일체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화유치를위한 캐나다의 정책변경으로 이자에관한한 미국인들은 안심하고 캐나다은행에 예금할수 있다.단 이들이 캐나다에서 근무,버는임금은 계속 IRS에 보고된다.캐나다에서 1년에 6개월이상 취업한사람은 캐나다에 세금을 내야하며 6개월이하 취업자는 미국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한국계 금융기관으로는 토론토의 외환은행과 한인신용조합,천주교신용조합및 뱅쿠버의 한인은행등이 있다.

◇해마다 사냥꾼들에 희생되는 물개나 고래를 보호하기위해 필사의 노력을경주하는 그린피스(Greenpeace)회원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가죽과 기름을 팔아 돈을 벌려는 업자들의 야욕은 여전하다.

그린피스 회원 . 패트릭·월씨는 생으로 가죽을 뺏긴 새끼물개의 시체를보자눈물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3명의 그린피스 회원이 지난12일 150마리의 물개새끼들에 초록색 물감을뿌려 사냥꾼들이 가죽을 이용치 못하도록해서 체포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법규는 사냥꾼들은 해마다 일정량의 물개나 고래를 죽일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고,그린피스는 이로 말미암은 멸종의 위기를 막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대통령 암살음모

야노버, $40만에 보석허가

15일상오11시 온타리오 최고법원 22호 법정에서 윌프레드·듀퐁판사주재로열린 혐의자 촬스·야노버(36)의 보석적부심에서 판사는 보석조건으로40만달러의 보석금과 주거등을 제한했다. 재판에 영향주는 증거제시나 증언등의 국내보도가 법원명령으로 금지된 동재판은 장장 4시간여를 끌었다.

듀퐁판사는"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마이클·제롤이 7만5천달러의 보석금으로풀려난 전례가 있으므로 야노버에게도 보석을 허가한다 그러나 그의 전과기록과 국제적 사건의 중요성으로볼때 몇가지 강력한석방조건을 달겠다"면서온타리오밖을 떠나지말것, 주거를 아버지, 벤·야노버씨의 집으로 제한, 어떤 수사상의 방해도 하지말것, 2명의 검찰측 증인을포함한 누구도 위협하지말것,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사본부에 출두할것을 명령하고 17명의 접근금지인물을 지정했다.

폭포에 아기잃은 여인
과실치사혐의벗어

(나이애가라 폴즈)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12일 생후 2개월반된 아들을 나이애가라 폭포에서 떨어트린 토론토 여인에대한 과실치사혐의를 기각시켰다.

두니아. 사예(28)여인은 2급살인혐의로 입건 재판중이었다.

작년8월29일 사건당시사예여인이 아기를 두손에안고 난간에 기대있는것을본 유일한 목격자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앨런·킹씨로 그도 사예여인이 아기를떨어뜨린 순간을 목격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킹씨는 증언에서 자기는 "아기를 떨어뜨렸다"며 발을 동동구르는 사예여인을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물결에 휩싸인 아기의 시체는 건지지 못했다.

사예여인은 1남1녀의 어머니로 8년전 레바논에서 이민왔다.

◇비극수분전 기념촬영한 사예여인과 물결에 휩쓸려간 아기 테샴, 왼쪽에는 딸(10)과 큰아들(12)

최중화 결백주장
서독서 신문사에 편지

대[illegible] 살해사건 관계자로 북한에 도피한 것으로 보도된 최중화는 15일[illegible]뉴스·미디아에 편지를발송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영어로된 6페이지의 이 편지는 서독에서 발송됐다

최는 자기는 전두환대[illegible]령을 증오하지만 살해음모에 가담한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총회
회장에 고광남씨

대한축구협회 캐나다 지부는 지난12일 클링톤하우스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고광남씨를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2년의 임원진으로김명관을 사[illegible]장으로, 권싱웅씨를 재무이사로 선출한 축구협회는 금년부터 교민축구대회를 알차게 펼쳐나갈것을 결의했다.

◇고광남씨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 별 봉 사 이 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8-9387～8			

〈스포츠퀴즈〉
누구일까요?

지난번「스포츠단상」 퀴즈응모자중 정답자가없어 추첨을 연기한다.

문제가 어려웠던 탓인지 응모편수는 많았으나 정답자가 없었다. 이번에는 응모기간을 3월30일까지 늘인다.퀴즈응모방법은 우편또는 전화(533－2361 담당자 유승민기자)앞으로 연락바란다.

문제는 옆얼굴의 축구선수이름을 맞추는 것이다. 이선수는 한국국가대표선수를 지냈고 포지션은 수비겸미들필드이다.그는 81년부터 미국태평양 포트랜드 · 팀버스의 수비수로 맹활약 중이다.포트랜드팀은 오는6월16일 토론토의 익지비션 스태디엄에서 블리자드(Blizzard)와 경기를 펼친다.

응모자중 정답자 2명을뽑아 토론토 블리자드·홈게임 오픈전인 4월16일2시게임 특석입장권 2매($24)가상금으로 주어진다.

?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536-1692
〈R〉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라도…

값이 시중가격의 반액입니다.
빅·세븐선물센터가 드리는 LONDON FOG
봄맞이 코트 대매출

남자 LONDON FOG
$80.

세무봄잠바
$90.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349.
○울트라스웨드여자용 상하복
$349.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차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한국연속극 염가로빌려드립니다
온가족이 한자리에서 즐기실수 있는비디오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생활의 활성화는 빅세븐이 직수입한 녹용제품으로!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노인학대 심각

주로 자녀의 부모푸대접

노인들을 신체적 정서적 혹은 욕설로써 학대하는사례가 메트로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고있다.

노인들을위해 일하는 공공보건간호원이 사회사업가및 심리요법전문가(Thera Pist)들은 심신으로 허약한 노인들이 그들의 일가친척들로부터 난폭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인한다.

그들은 노인들의 심한타박상과 손목이 부러지는등 얼굴에 가득 공포를 띄운채 위급병동에 자주 실려온다고 밝힌다.

그들은 또 장성한 자녀가 늙은부모의 약함을 악용, 부모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부모를 돌보지않고 방치한다고 말한다. 흔히 이같은 노인들은 자녀들에의해 무시당하고 강제로 방안에 갇혀지내며, 별로 관심을 받지못하기일쑤다.

토론토 공공보건 감독관 도나·비센탈은 이같은 현상에대해 아직 구체적인통계자료는 없으나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말한다.

노인문제 전문가 바브라·트라안은 노인들을위한보호수용시설의 상당한 부족으로 가족이나 친척들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것이사실이며, 이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말한다.

부모학대는 자녀학대와 별로 다를바 없다. 이것은 모두 같은 좌절감과 분노에서 연유된다.

토론토 공공보건소간호원 리타·리건은 노인 학대에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의 복잡한 무엇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약한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문제를 잘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신체적으로학대하려는 기미를 보일때노인들이 그들의 실수로 넘어져 팔이 부러지거나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을경우 병원측은 가족의 학대때문이라고 오해하는수가 많다고한다. 그녀는 또 노인들이 그들이입은 신체적 피해가 그들가족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밝힌다.

노인학대는 흔히 노인들이 격리된 주택에서 살기때문에 공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 대부분 이같은 케이스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에올때만 비로소 밝혀진다.

강연"젊어지는길" 노인120명 모여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는 지난14일(일)하오3시 세인트·폴성당 강당에서 약120명의 회원이 모인가운데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순서로 본당이석현 전교회장의「젊어지는 길」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이씨에 의하면 젊어지는길은 미소를 잃지않는삶—의욕과 활기에찬 일과로고독감, 소외감, 패배의식등을 극복함으로써 항상 싱싱한 정신을 지니고 희망적 삶을 보냄으로써 행복을 구축해야하며, 노인병— 늙는다는것은 자연연령보다 정신연령으로 측정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어지는길은 신앙의힘에 바탕을 두고, 능동적으로 사는것—자기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인정, 높이 평가하고, 이웃에, 남에게 도움주는 봉사자의 삶이 청녕 상춘의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새회장에 서준경씨

고대동창회, 장학기금 확대계획

고대동창회는 지난6일박문현 동창댁에서 가진 총회에서 임원을 개선, 새 회장으로 맥스밀크 수퍼바이저 서준경씨를 선출했다.

부회장으로는 조병억, 총무부장 정필주, 섭외간사곽일성, 내무간사 유선미, 재무간사 서광철씨가 뽑혔다.

고대동창회는 금년도사업목표로 현재$3,000가걸린 장학기금을 $10,000로 확대, 본교후배와 회원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캐나다 한인장학재단과 협조도 계획하고 있다.

고대동창회는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갖고있다.

◇서준경씨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구독신청
한국일보
533·2361

알 림

— 실협뉴스 추가분—

(1)여론조사 앙케이트 접수 —
아직도 설문지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사업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입니다.

(2)3월27일 한인배구협회 창립기념및 제1회 춘계교민배구대회에 실협팀을 구성하여 출전코자 합니다. 회원중과거 배구선수 경력을 가진분이나 취미와 관심이 있는분들은 리크레이션으로 알고 나와주십시오. 언제든지협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3)작은 경영상식
부활절 절기가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스탁을 오더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Whipping Cream, Bunny Chocolate, food Coloring, Cards, Cranberry Sauce)

〈법률상식〉 Legally Speaking... a CLEO publication (下)

체포와당신의권리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때당신은 음주테스트 요청을받는다. 당신은 이같은 요청에 자체없이 변호사를불러 가부간의결정, 충고를 받을권리는 있으나 경찰서에서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권리는없다.

때때로 경찰은 변호사가 오기전에, 혹은 전화로 변호사를 부르는 허락을 받기전에 혐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한다. 이럴경우 경찰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기 힘들는것을 알면 도움이된다. 실례로 당신은 경관에게무슨말을 하기전에 "내가 당신에게 변호사를 만날수있도록 요청했으나 당신이거절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시오"라고 말할수 있다.

요약하면 당신은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를알고 무슨말을하기전에 개인적 으로 당신의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있다. 경찰에게 당신의 신원을 밝힌후에 당신의 변호사와 개인적으로접촉하기 전에는 무슨말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관련된 혹은 다른법률문제에 대해 더 알고싶으면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62 Noble St, Toronto, Ont. M6K 2C9)로 연락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편집자주 : 독자중 법률문제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의주소, 또는 본사 편집부 김종환 기자에게 연락하면 이란에 반영된다.〉

◆젤로 레슬링–머드(진흙탕속) 레슬링이 인기를 모으더니이번엔 디저트용 젤리인「젤로(Jell–o)통속에서 벌이는 여성 레슬링도 등장했다. 뉴햄프셔주정부검찰은 11일 젤로 레슬링도 일반 레슬링과 같이 주복싱및 레슬링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고 발표.

제5계절 마음의 설계도

석 광 옥(스님·불광사 주지)

◇석광옥 스님

사람이 살아간다는 사실만큼 엄숙하고 진실한 것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운명을 결정짓는것이 외부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불행이 있는 것도 그를 지탱하는 생각이 뒷받침해서 있어지는 것이며, 스스로 소망스러운 것을 이루는 것도 또한 자신의 자유스러운 생각이 가져온 결과이다 결국 생각이 모두를 만든다

우리는 오늘날 라디오의 피장이나 TV의 전파피장이 혼교해서 허공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알고있다 방송의 전파피장이 온 세계를 가득히 덮고 그 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가 마련될 때 그 파장에 알맞는 라디오소리나 TV화면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 인간들도 생각이라는 마음을 통하여수많은 생각의 파장을 우리주변에 형성하고 있는것이다

인간의 상황은 물질상황이며 환경상황이며 인간적 상황이라고 하겠지만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이와같은 인간정신의 발현인 마음의 파장 즉 상념의 표현이라 하여야 옳을것이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일으키고 또한 어떠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것은 약한 전류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파장은 인간의 신경조직 속을 흐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내장의 기능을 감퇴시키거나 저해시키기도 하며 혹은 기능을 수축시키거나 원만하게 하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의 파동은 이와 같이 인간내부에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마음의 파동은 우주 어느 곳에든 마치 방송국 송신탑에서 전파를 발사하듯이 우리들개인의 무수한 상념과 감정을 발사하며 그 속에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의 파장인 상념피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상념피를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들의 인식능력은 눈에 드는 형상 고막을 두들기는 음파 또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물건 등등으로 한정적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귀로 들을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하여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보아온 방송전파와 같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촉각으로 만져질 수 없는 전파는 없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속 소망의 설계도가 현실화하는것이다

마음의 설계도는 신념으로 굳히고 세월로 연마하면 현상계에 구현화된다

최고흉악범 14명 지명수배

연방경찰, 토론토인 2명포함

연방경찰은 최근 캐나다에서 가장 위험시되는 흉악범 14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소 3개월이상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아온 "지극히 위험한인물" 들로 늘 무장을하고 다닌다.

연방경찰은 해마다 두번씩"Dirty 14"(지명수배 흉악범 14명)의 명단을 사진, 전과기록과함께 포스터로 공표하는데 이번명단중 2명은 토론토인, 1명은 미시사가거주자이며, 여자와 유색인종은 끼어있지않다.

오타와의 RCMP본부에서 신원담당관으로"더티 14"선정의 책임을맡은 브라이언·포티형사는"지명수배 포스터에 포함될 전과범들은 우선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어야하고, 경찰에 사진이 캐나다및 미국의수사컴퓨터망에 포함돼있고, 캐나다 전국에 영장이 발부된 송환이 가능한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명단이 작성되면 RCMP는 약5만장의 포스터를 만들어 캐나다 전역경찰, 미국과의 접경지대및미국북쪽지방등에 뿌린다.

폰티씨는 일반시민이 포스터에실린 인물을 발견할때 즉시 수사당국에 알리고 직접 그들에게 접근하지는 말도록 당부한다.

14명중 토론토인 2명의 신상은 다음과같다.

Ronald Perkins

Andre Hirsth

◇로날드·퍼킨스(26 토론토): 강간및 성범죄로 입건됐다, 작년2월 정신감정을위해 클락 정신연구소로 호송도중 탈출한 지극히 위험인물.

◇안드레·허쯔(24 토론토): 보석상주인 살해, 81년크리스마스때 돈·제일 교도소에서 통풍기를통해 탈출했다.

◇매년 봄이면 일어나는 일이지만 금년에도 햇볕이 반짝하자 미녀들은 훌훌 벗어버리고 거리로 나왔다. 반사경을 들고 살결을 태우는캐리·리에게 젊은 남성들은 시선을 돌리는것은 당연.

주간女性

취임예배안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요.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게 될것입니다. (벧전 5 : 3–4)

본 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신 조남유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하하오니 오셔서 함께 축하와 격려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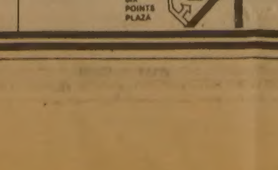
— 아 래 —

때 : 1982년 4월 4일 오후 2시
곳 : 본 교회(3819 Bloor St. West)
St. Andrew's church
설교 : 홍 순 관 목사님(동부장로교회 시무)
안내전화 : 742–2193(정집사)

1982. 3. 15

— 개별 초청 생략

토론토 대한교회 제직일동
KOREAN CHURCH OF TORONTO
3819 Bloor St. W. Islington M8B 1K7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신학대학(토론토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 득 학 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수세후 2년 이상자 ② 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 A.)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 A.)	① 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종교음악과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B. MUC.	① 음악목사 코스 ② 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 제한 없음 ① 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 (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및 시험 장소 : 본대학 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416) 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 1982년 3월 30일(월) 오후 6시
3. 전화 문의할 곳 : 762–1495, 630–073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 비 서 류 : ① 입학원서 ② 최종학교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③ 당회장 추천서 ④ 사진 3매(명함판) ⑤ 전형료 $50.00(시험당일 지참)

＊시 험 과 목 :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 험 일 시 : 1982년 3월 31일 오후 7시
 시 험 장 소 : 본대학 강의실
6. 합 격 자 발 표 : 1982년 3월 31일 당일 발표
7. 수 업 시 간 : 월, 화, 목 오후 6–10시
8. 등 록 금 :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 교 일 시 : 1982년 4월 5일 오후 6시(신입생 Orientation)

✣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 학장자문위원 (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 (Prof. of Drew Unv.)

✣ 종교음악과 교수진
○작곡 : 박재훈 박사
○기악 : 유회자 박사(오르간)
○성악 : 이주연 선생

✣ 신학과 교수진 :
최양선 강세대 김창길 이병규 김용주
최상봉 안상엽 김용진 최이열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이병규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매쉬」, 大團圓의幕

한국戰 素材로한 코미디프로 내년2월까지
總11년6개월동안 放映된 最長壽프로 기록

한국전쟁을 배경으로한 TV코미디드라마「매쉬」(MASH)가 내년 2월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매쉬는 11년6개월동안의 방영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CBS방송과 20세기 센추리폭스사는 올여름께 가서야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매쉬의 주연급 배우인 알란앨다와 고위 제작진들은 이미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제작진들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방영되는 16회분 에피소드에서 끝마무리를 짓게된다. 방영내용을 보면 10월달에는 정규코미디 내용을 담고, 11월께 가서 전쟁의 종말을 예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2월에는 2시간짜리 특별프로그램을 구성 대원모두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귀국하는 장면을 싣는다.

◆「매쉬」의 배역진－맨앞이 알란·앨다.

"정관手術 잘못한 임신 의사책임은 아니다"

아칸소州大法院 判示

〈리틀록, 아칸소－UPI〉 아칸소주대법원은 의사가 정관수술을 잘못해서 원치않는 아이가 탄생했더라도 그것이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아이의 아버지인 버질·윌버는 2년전 2차례나 정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80년 2월또다시 부인이 딸을 낳자, 의사 2명을 상대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및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대법원은 전례없는 재판을 맞아 8일 5대2로 윌버의 소송을 기각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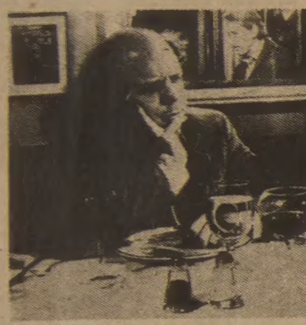
패소한 윌버 부부는 「상고할 생각은 없다. 의사들이 패배하긴 하지만 예쁜 딸을 낳았으니 소송사건을 잊어버리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416)533·2361

새 映画

앙드레와의 저녁식사

참된 현실강조…작은 희열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앙드레의 얘기를 듣고 있는 월리의 모습에서 오래간만의 진지한 삶의 태도를 엿본다. 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앙드레.

「My Dinner With Andre」는 근 두시간 동안 두친구가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들며 얘기를 나누는 「언어」가 주인공인 영화다.

대조적으로 생긴 연극감독 앙드레·그레고리와 극작가이자 배우인 월레스·숀이 때로 심각하면서도 코믹하게 엮어나가는 얘기는 평범한 우리들이 모두 한번쯤 생각해봤을 것들이면서도 이제는 이미 생각하기를 중단(?)한 것들이어서 새삼 『아! 나는 그동안 너무바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두시간 동안 앉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간혹 지리한 감도 있으나 토실토실 찐빵같이 생겨 보기만해도 웃음이 나오는 월리와 생선뼈처럼 날카로운 앙드레가 때론 소곤대다, 때론 강한 억양으로 나누는 얘기가 우리가 자의식을 가진 이래 추구해오고 실망하고 기뻐하며 또 슬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보고나면 심한 갈증이 해갈된 작은 희열을 맛보게 된다.

대화의 내용은 식은 커피에서 생·떽쥐베리의 「작은 왕자」까지, 테드·케네디와 코페크니, 존·록, 전기담요, 스펜하우어, 섹스, 티벳·인도·사하라와 폴란드, 프랭크·시나트리와 구찌구두를 신은 일본승려등…

정신적 모험을 찾아 동양을 돌아온 앙드레가 못질하듯 「현실」과 「이상」을 얘기하면 월리는 눈을 깜박이며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설사 대화의 깊은내용을채 못파악했어도 재미 있는 작은 보석같은 작품이다.

생을 갑자기 느끼고 이것이 곧 죽음과 연결된다는 자각에 공포를 느끼고 가족, 친구, 연인등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려고 주장하는 환영일 뿐이며 우리는 그저같이 존재할 뿐실제로 나 아닌 타인의 실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등이 말하듯이 이 영화는 「참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 고통, 죽음, 삶의 희열을 평범하게 얘기하는 이 작품을 대화의 단절세대에 살며 일찍 철학책을 손에서 놓은 모든 우리에게 권하고 싶다. 감독 루이·말, 뉴요커필름즈 배급.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⑱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물론이고말고. 술에는기분이 안주가 아닌가? 그런데 기분이란 서로 통하는 끼리끼리의 감정이 아니겠는가? 넌 신부지만 술마시는 품을보면 술을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인종을 달리한 이국인이지만 전쟁을겪은 전우가 아닌가? 우리는 서로 통하는점이 많아."

그는 명랑하게 말하며나에게 처음으로"놈"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끼리끼리라고 말할수있는 동지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서로가 겪은 전투담이나 해볼까? 어때, 노루만디 상륙작전때 자네가 세웠다는 무훈담을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려나?"

아스랑은 노루만디 상륙작전때 혁혁한 무훈을 세웠다했다. 그래서 그는 금성훈장을 받았단다. 그는술만 마시면 항상자기의 무훈담을 털어놓기 좋아하며, 자기의 무훈담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그지없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나는 들은일이 있었다. 그래서나는 그가 좋아하는 전투담을 들어줌으로써 그와의인간적인 접촉과 대화를 계속하는한편 그에대한 나의 우정을 표시하기로 했다.

나의 예상대로 그는 장황하게 자기의 전투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감동적인 전투경험담이 진행됨에따라 그는 나를자기의 옛전우로 받아들였고, 말도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미그는 나에게 쌍말을 쓰지않았다. 그는 헐어빠진 괴짝속에서 낡은 앨범을꺼내다가 군인시절의 사진까지 나에게 보이며 자기자랑에 완전히 도취되어있다.

나는 그의말을 성의있고 흥미있게 열심히 들어줬다. 그는 그러한 나의태도에 만족해하는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은 위스키 한병을 다마셨다. 똑같은 분량의술을 우리는 나눠마셨다. 부리노는 기분좋게 술에 취해있었다. 나는 긴장되어 있던탓인지그다지 취기를 못느꼈다. 그때나는 그의 기분상태와취기를 이용해 왜 그가 성당에 안나오며, 또 신부들을 그처럼 미워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부리노, 나는 자네의 영웅적인 전투담을 들으면서 자네한테서 깊은 전우애를 느꼈다네. 자네는 용감한 사나이야. 그런데 자네의기분을 상해줄수있는 말이되겠는데…과거의 자네와 현재의 자네자 자꾸 비교돼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한텐 뭔가 이해 안되는점이 이 안되는점이 있네그려. 왜냐하면 용감한 사나이의 인간성은 항상 단순한것으로 난 믿고있는데, 자네의 인생은 뭔가 복잡하고 또 무슨 비밀이 있는것 같네그려."

나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해를 하고 못할것이 나에게는 하나도없네. 나같은 사람을 이해하려 든다는것은 헛수고일 뿐이야. 신부라는 직업의식으로 되돌아가 도덕이니 신앙이니 하는따위의 시끄러운 말로 나를 설득시키려 든다든가, 아니면 나의심리상태를 분석하려고는 제발말게. 난그런말 들으면 구역질이 난다네."

그의 말 내용은 좀 거칠었으나 음성만은 부드러웠다.

"아니야, 부리노. 물론 나는 신부지만 지금 나는 신부의 입장보다는 자네의다정한 동지의 입장에서 자넬 찾아왔고, 또 이렇게 자네하고 대화하고 있네. 비슷한 인생경력을 가진 동지로서 난 자네를 진정 내 친구로서 사귀고 싶네. 난 자네를 사랑하네."

"날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취기로 맥이 풀린듯하던 그의두 시선이 갑자기 빛나더니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래 자넨 내 친구야! 자네도 보다시피 난 외국인이 아닌가. 이 고장에 내 친구가 어디있겠나? 그리고 누가나의 친구가 되어 주겠는가 말일세. 수천명의 신자를 거느린 이 성당의 보좌신부지만 이렇게 거리낌없이 쌍말도하고, 술한잔 같이할수있는 사람은 자네 한사람 뿐일세. 내 마음을 줄수있는 사람은 자네 한사람 뿐이란 말이야. 나도 자네와같은 외로운 인간이라네…"

"태오신부. 넌 정말나 를 친구로 대해주겠나?"

처음으로 그는나에게"신부"라는말을 사용했다. 그때 그의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계속)

주간女性
(416) 533－2361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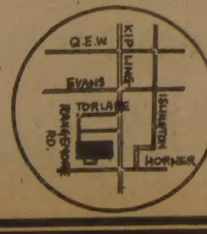
三國志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

Old south orange Juice	24x12oz.	$24.09
J&M Schneider Cooked Ham		$ 1.59
Beef steakettes		$ 1.89
10 Oz. Wiener		$ 1.27
Tetley tea	24x36	$22.65
Nabob coffee	12x1 lb.	$36.89
Rown tree Reg.	36's	$ 9.89
Maple leaf flavor meat		.79
Salami		.99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ㅇ쥬 스—용법 : 한 수픈씩 하루 세번 세번 식후 식전 복용
ㅇ젤 리—필요하신 상위부분에 바르는것
ㅇ힐로숀—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두통, 타박상, 발삔데등
ㅇ로 숀—여성피부 미용및 탈모증등 사용
(모든 고급화장품의 원료는 알로액이 첨부되어있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드립니다.
※임산부와 생리중에 있는분은 사용금지함.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20 DUNDAS ST. W. (416) 769－4347(B)
TORONTO, ONT. M6S 4W6 248－1362(H)
CANADA 정 효 기(Hyo-Ki Chung)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貸出부조리 드러나면 引責
銀行지점장 전원覺書

◇재무부산하 17개 금융관계기관장들은 11일 羅雄培장관 주재아래 대출부조리 척결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오늘銀行別 간부召集
무기한 特別감사등 對策협의

금융단은 11일상오 각은행별로 전국점포지점장과 본점부서장을 일제히소집、대출관련부조리를 일소하기위한 재무부장관의 특명을 시달하고 점포장과 부서장전원으로부터 각서를 제출받기로했다。각서내용은 대출관련비위가 발생할경우 본인은 물론 直上책임자와 해당부서장및 점포장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것으로 돼있다。

재무부장관 특명사항은 ①금품수수시 관련자및 책임자 전원을 엄중문책할것 ②대출부조리 근절을위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를 무기한실시할것 ③각은행이 자체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방지토록 할것등으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한은을비롯한 7개 국책은행、5개시중은행、신용보증기금、장기신용은행、10개 지방은행、한국감정원등 25개 금융기관은 12일상오10시 본점부서장과 在京지점장은 각은행본점으로、지방주재점포장은 소재지관할 母店점포로 일제히 소집、각서를 쓰게하고 특명을 시달한다。

금융단은 이와함께 대출부조리 근절을위한 금융환경및 제도개선작업에도 착수、저축추진활동비를 현실화하고 대출요원을 엄선하는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해나갈방침이다。

뇌물주면 貸出金회수
銀行長회의 6개월간 新規貸出도 중단

羅雄培재무부장관은 11일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대해서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6개월간 신규대출과 지급보증을 해주지말라고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羅장관은 이날상오 재무부회의실에서 裵秀坤은행감독원장을 비롯한 17개 國策·市銀행장등 금융기관장회의를 긴급소집、최근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출이나 신용보증 감정평가등 금융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조건부 또는 의례적 금품수수행위를 뿌리뽑기위해 대출制裁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羅장관은 또 부조리발생소지를 없애기위해 금융기관점포장의 활동비를 월30~50만원까지 과감히 현실화하고、청탁압력등에의한부정대출과 인사질서문란행위및 사실무근한 투서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羅장관은 앞으로 기관장및 임원인사때 사고에대한 책임유무를 주요평가항목으로 삼겠으며 각금융기관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때 直上級및次上級책임자에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점포담당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다。

羅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금융과 관련된 부조리를 중점적으로 뿌리뽑도록 지시했다。

羅장관은 이어 은행감독원및 각금융기관장 직속기구로 특별감사기구를 설치、은행감독원 주관으로 부조리와 관련된 정보수집활동과 취약분야에대한 직무감찰활동을 무기한 전개토록하는 한편 대출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은 청렴성을 우선적으로따져 배치하고 일정기간 근무한후에는 다른부서로 순환근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羅장관은 또 금융부조리척결작업이 은행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무사안일한업무처리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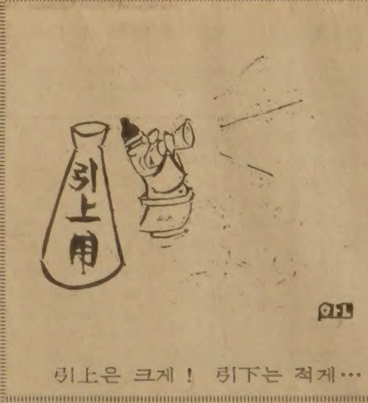
鄭住宅行長 引責사표

한편 鄭英謨주택은행장은 ...고에대한 도의적책임을 지고 11일상오 사표를 제출했는데 鄭행장의 사표는 수리될것으로 알려졌다。

住宅 은행장에 柳惇佑씨 내정

정부는 11일 사표를 낸 鄭英謨주택은행장 후임에 柳惇佑대한투자신탁사장을 기용토록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社会漫評



引上은 크게! 引下는 적게…

地平線

오르기만 하던 담배값이 어쩐다 일부나마 내린다고 한다。교육세부가에 덤달아 편승인상됐던 한수、한산도、수정담배값을 얼마 안되지만 20원씩 내려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담배피우는 분에겐 뭣보다 반가운 소식이다。담배公害論도 나오고 있는 판에 안피우면 그만일것 같으나 피우는 이에겐 그것이 하나의 嗜好品이므로 한끼식사는 거를지언정 흡연은 그만둘수 없다는 것이다。담배는「식후 제일미」니「客來初人事」니 할정도로 단조로운생활에 정취를 안겨주기때문이다。한데 담배 피울줄은알아도 흡연예절을 모르는이가 더러는 있다。술에는 酒禮、茶에는 茶道、담배에는 煙儀가 있다고 湖岩文一平은 말했었다。손님이 오면 주인이 반드시 담배를 권하되、연장자 일때는 불을 붙여드리는 것이 담배儀則이라는 것이다。연장자 앞에선 연소자가 담배를 못피우는 것이 상례이며 담배엔 少長貴賤이 이토록 준엄했었다。▼檀園그림에 양반이 담뱃대를 문 장면이 보이는데 대개 곰방대가아니고 긴長竹을 물고있다。이長竹을 무는것이 곧 兩班의 권위처럼 그당시엔 알아줬다。朴趾源의 兩班傳엔 담뱃대를불이 오목오목하도록 빨아서는 안된다는 대목까지나와있다。긴長竹이 점점짧아져 곰방대가되고그길이가다시호주머니에들어갈만큼 작아진것이 지금의 담배라고 할수 있다。이 짧아진 담배로 긴연기를 어른얼굴에 내뿜는 젊은이를 보면 말문은절로 막혀진다。▼담배가 우리나라에 처음들어왔을때 光海君은 담배냄새를 극도로싫어해 신하들이궁중에모여 담배를태우는 것을 보고는 口不美라고 한마디했다。이말이 우리나라에서 담배公害論을 펼친 첫마디라고 한다。옛날엔 높은사람이 지날때 아랫사람들이 긴담뱃대를 뺐치는것을금했고 위반자는 笞刑에 처한일도 있었다。京都雜志의 煙禁風俗을 보면 부인들의 담배피우는 습관도 어지간했던 모양이다。나중엔 婦女吸煙은 精潔이 더럽혀진다고 여겼고 나이젊은이들이 흡연하면 버릇이 나빠진다하여 常規가 필요하다는 여론마저 돌았다。또 病者煙竹이나 婦女煙竹을 물지말고 寢室勿吸、馬上勿吸、船上勿吸、對戶限(문지방)勿吸을 주장하기도 했다。오늘날의 室內禁煙、路上禁煙、車內禁煙이 몇백년전에도 입에오르내렸던모양이다。▼지금도 어른앞에선 담배불을끄는 젊은이들을 흔히 본다。점잖은 집안에서 자랐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담배有害論을 가르쳐줄때 멀어놓고 나쁘다고만하지말고 담배禮儀도 배워주는 느긋함이 있어야 겠다。담배값이 조금 내렸다고 품질이 나빠지지야 않겠지만 일본보다 전매제를 1백여년이나 앞서 실시한 우리인만큼 질좋은 담배만들기에 더 노력해달라고 이 기회에 부탁해두겠다。

계약위반殘量 導入 特惠아닌가
經科委 질문·답변 "국제米價 떨어질것 예상했다"

국회 經科委는 11일 金埈成부총리、金周浩조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美國産 쌀 수입과정에서의 수뢰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날 趙舜衡(無) 洪思德(民韓) 金鍾河(국민) 李孝益 裵成東의원(이상 民韓)은 질의를통해 정부가 外米를 도입한과정을 질의하면서 그과정에서 빚어진 國庫낭비를 추궁했다。

이들의원은 질의를통해▲퍼미社와아그네프롬社와의계약에의하면 계약의무 不履行시 파기할수있도록 약정이돼있는데도 殘量分에대해 再契約을한것은 특혜가 아닌가。▲퍼미社의 확보物量이 12만톤분이었는데 20만톤을 계약한이유는 무엇인가▲81년7월말 신용장을 연장해주면서까지 당시 3백50달러수준이었던 南部米를 4백49달러선에 4만톤을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들은 또 殘量分 10만에 대한 再契約으로 1천만달러이상의 불필요한 過多지출을 했다고 보지않는가▲81년 2월말현재 加州米의국제시세는 2백90달러선、南部米는 2백70달러선이었는데 高價로 계약한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정부가 美농무장관앞으로 81년도에도 50만톤을 구매한다는 서한을 보낸이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金周浩조달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퍼미社가 81년3월선적연기를 요청해왔을때 계약을 취소할수도 있었는데도 농수산부의 지시에의해 계약을 연기시켜주었다고말했다。

金청장은 당시 농수산부에서 꼭 연기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농수산부에 품의서를 제출할당시 국제米價가 떨어질것으로 예상했느냐』는 洪思德의원(民韓)의 물음에 대해『그렇다』고 말하고『그것점에서殘量을취소할수있다는 점을얘기했다』고답변했다。

한편 法司委에서는 이날하오 民韓黨의 李官炯의원이外米도입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기위해 李漢基감사원장의 출석요구동의안을 제출하여 한때 停會했다가 李감사원장의 출석요구에 따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반대10(民正) 찬성5(民韓)로 부결했다。

이날 經科委에서 民韓黨의원들은 李漢基감사원장과 高建농수산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회의가한때中斷되었다。

民韓、院內戰略협의

民韓黨은 12일 상오 긴급黨務會議를 열고 外米도입스캔들과 관련한 국회운영문제등 院內戰略을 협의한다。

쌀導入스캔들 常委서만 審議 與
監査院長 출석·會期연장요구 野
總務회담異見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는 11일 국회 국민당 총무실에서 회담을열고 外米도입스캔들과 관련하여 ▲調査特委구성 ▲제110회 임시국회 會期연장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여부등 현안문제를 논의했으나 與野간의주장이 엇갈려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林鍾基民韓 李東鎭국민당총무등은美國産 外米도입실태와 스캔들은 政派를 초월하여 파헤쳐야 하기때문에 特調委를 구성하고 이문제를 파헤치는데 시간이 더필요하기 때문에 이번국회 會期를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李漢基 감사원장이 法司委에 자진출석、이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관계 상임위인 農水産 經科委등 관계 常委에서 문제를 다루는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特調委를 구성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국제관계라든가 정부측 얘기로 미뤄볼때 特調委까지 구성、오래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特調委구성에 반대했다。

國政조사 特委案제출
野黨 쌀導入 賂物스캔들 철저규명

外米도입에따른 뇌물 수수스캔들의 처리문제로 與野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가운데 民韓 국민 議政同友會가 11일 공동으로 이문제를다루기위한 國政調査 特委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外米스캔들문제는 12일 운영위에서 논란이 계속될것 같다。

民韓黨의 林鍾基 총무、국민당의 李東鎭총무、議政同友會의 金正秀총무를 비롯한 野黨의원 1백22명은 11일하오「外米도입에따른 부정 사실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미국산외미도입을 계기로 미국의업자와 조달청 당국사이에 수백만달러의 賂物이가 있었다는 미국내의 提訴사태와 美의원들의 匡正촉구서한은 우리정부의 국내외적 信認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된다」며『따라서 이와관련한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위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特委위원수는 與野동수로 할것을 요구 했다。

연체貸出金 7천억
전체貸出 3·3%차지 地方은행이 많아

은행이 대출해주고 받지못하는 돈이 무려 7천억이나 된다。

11일 재무부가 국회에제출한 자료에의하면 작년말현재 은행의 연체대출금은 5개시중은행이 4천1백73억원、특수은행이 1천6백41억원、지방은행이 1천2백88억원등 모두 7천66억원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액수는 전체대출금21조1천8백68억원의 3.3%에 해당하는것이다。

은행별 연체율을보면 지방은행이 전체대출금 1조3천8백39억원의 9.91%로 가장높고 다음은 시중은행으로 전체대출금의 5.03%、특수은행은 1.42%를 나타내고있다。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인대출규모는 크지않지만 경영미숙등으로 그간 부실대출이 누적되고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美下院 農務委청문회
對韓 쌀輸出 不正여부 따지기로

【워싱턴11日=曺淳煥특파원】 美하원農務위원회의 原綿·쌀및 사탕 소위는 對韓쌀 수출부정사건이 확대됨에따라 쌀생산지출신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11일(현지시간) 상오10시부터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

「미드웨이」등航母 韓國海域으로移動
팀스피리트參加

【수빅灣(필리핀) 11日=聯】 팀스피리트82훈련에 참가하는美제7함대소속항공모함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하는 대규모 항모전단 본진이 11일 상오9시 필리핀 수빅기지등을 떠나 한반도해역으로 이동배치되기 시작했다。

美7함대소속 헬기적재함 트리폴리호(3만톤급)가이날오전9시(이하 한국시간) 수빅해군기지 제3부두에서 CH56、CH43 코브라등 헬기42대와 기타 장비및 병력을 싣고 출항、이미 이곳에서 정비및 장병훈련을 마치고 일본요꼬스까근해에서 작전중인 7함대 주력함 미드웨이호와 합류、이달23일께 한반도해역에 출동하게된다。

經協·安保논의
韓日협력위 共同성명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 韓日양국의 유력한 정치·경제·문화인을 한데모은 韓日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1일 2년3개월만에 東京뉴·오따니호텔에서 열려 경제협력과 안보의 강화、문화교류의 확대등에 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20차합동회의는 11일과12일 양일간 열려 12일 全大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위해 韓日양국이 가일층 협력을증진할것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폐막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南悳祐한국측회장은『최근 한국의 위치가 자유진영의 최전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우방각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글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한국관
연중 무휴
3불50
냉면·짜장면 | 곰탕· 짬뽕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점심특별 스페샬
~~ 기간 : 1982년4월15일까지 ~~
~~ 월~금 오후2시까지 ~~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식및궁중요리사 : 김옥자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美정부、「쌀스캔들」仲裁나서

對韓쌀市場 상실우려 業者상호간 協議 요청

提訴당한 퍼미社 "근거없는 모략이다"

【로스앤젤레스=邊鴻鎬기자】한국의 미국쌀판매와 관련、미곡업자간에 벌어지고있는 알력을 해소하기위해 미국정부가 중개에 나설 조짐을보이고 있다.

미국무성의 한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미정부관계자들은 미곡업자간의 분쟁으로 한국시장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우리들은 관계업자들에게 상호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최근 한국정부가 미곡업자분규로 미곡수입시장을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로 확장시키고있음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미 국무성측은 관련업체당사자들에게 한국정부 관리들이 미국 업자간의 분규에 당혹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한국의 미곡수출시장을 잃지않기를 요망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미국의 미곡업자간의 분쟁은 70년대이후 朴東宣의 업고 對韓미곡수출을 독점하다시피해온 코넬社를 중심으로한 기존업자와 新興미곡수출업자인 퍼미社와의 과당경쟁으로 빚어진 것으로 캘리포니아 곡물업계에서는 믿고있다.

對韓미곡수출은 지난 2년동안에는 신장세를 보여왔으나 지난해부터 거래량이 줄고있는데다 캘리포니아産 칼로스쌀은 과잉생산에따른 재고누적으로 재배농가들이 크게 우려하고있다。특히 올부터는 재배농가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증제도가 없어져 미곡조합의 매입가격이 50파운드당 8달러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돼있기 때문에 일부재배농가에선 올해재배를 포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2개의 민간농민협회로부터 제소당한 퍼미社(퍼시픽·인터내셔널미곡회사·대표 커트·로칸)의 부르노대변인은 10일 인터뷰를통해『이번 고소사건은 경쟁업체의 근거없는 모략』이라고전제、『이같은 모략은 우리회사와 한국에대한 명예를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르노대변인은 회사대표인 로카씨의 서명으로된 성명서를 발표、『한국정부가 이번사건이 한국시장을 독점하려는 코넬회사의 모략의 일면이라는 점을 파악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2개 민간농민협회의 고소는 코넬社가 한국측을 위협해 우리회사의거래를 妨害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뉴 저지州의 미국수출상인 코넬社는 우리회사가 對韓미곡수출경쟁에서 성공적인 실적을따냈기때문에 고소한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부르노대변인은 과거 코넬社가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 朴東宣씨등을 포함한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이용、한국시장을독점해 왔다고 밝히고『우리회사가 쌀수출경쟁에서 부각된것이 상대편을 자극한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퍼시픽·인터내셔널측은이같은 성공적인 사업에 코넬社는 前샌프란시스코市長을 지낸 조셉·알리오토변호사를 동원、고소를통해서 우리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퍼미社측은『상대회사들이 美국무성에대해 협의를 주장했으나 우리정부는 이같은혐의의 증거를 갖지못했다』고 밝히고『그들은 우리를 모함하고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부르노대변인은『이같은 모략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명예를 실추시켰음에 본사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蘇·쿠바와 秘密회담

中美 무력분쟁事態 해결위해

◇不正선거抗議데모서 負傷당한 女人　부정선거에 항의、시위를 벌이다 무장폭동진압경찰로부터 구타당해 턱을 다친 한부인이 딸의 부축을 받고 있다。【과테말라시티11日AP電送=聯合】

헤이그 "當事國협의 계속用意"

掃蕩戰만으로는 解決안돼"

【워싱턴10日UPI·聯合=聯合】헤이그 美국무장관은 10일 미국은 엘살바도르등 중미무력분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소련및 쿠바와 협의한바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앞으로도 모든관계 당사국들과 계속 협의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다짐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美상원 對外활동소위에서 엘살바도르 사태는 소련과 쿠바가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있는자유진영 파괴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좌익게릴라에대한 소탕전만으로 해결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건행정부는 전반적인 중미에서의 무력분쟁을종식시키기위해 쿠바및 소련과 회담을 가졌었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지난11월 멕시코에서 라파엘·로드리게스 쿠바부통령과 비밀리에 만났으며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과도 뉴욕과 제네바에서 2차례 회담을가졌었다.

蘇、부패官吏에實刑

70여명、賂物수수로

【모스크바10日AP=聯合】소련당국은 국가조달위원회내의 한小委부위원장등 70명이상의 관리들에게 뇌물수수와횡령을 이유로 최고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蘇주간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誌가 10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당국이 우즈벡공화국관리들이 무기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후 지난 80년부터 관리들의 뇌물수수혐의등에 비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전하고 이들 부패관리들이 7년에서 1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잡지는 이들 관리중에 국가조달委의 목재小委부위원장 레프·쿨리코프가 포함돼있으며 이밖에도 화학공업성·체신성 관리들이 다수포함돼 있다고 전했으나 이들의 신원과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잡지는 일단의 우즈벡공화국관리들이 지난75년 주로 목재를 중심으로한 건축자재의 전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중앙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했다.

亞洲인구 서기 2천년도에 34億명

【방콕10日AP=聯合】아시아의 인구는 오는 서기 2천년까지 현재의 25억에서 34억으로 늘어날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엔의 한보고서가 10일 밝혔다.

左翼게릴라 대규모 攻勢임박說속

엘살바도르 市街戰 재연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11日AP=聯合】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에 의한 대공세임박설이 나도는 가운데 수도 산살바도르남방 48㎞에있는 라리베르타드省에서 정부군과 게릴라간에 전투가 다시 벌어져 좌익분자10명이 사망하고 정부군1명이 부상했다고 정부소식통이 10일 발표했다.

정부관리들은 9일밤과 10일 게릴라들이 수도및 수도근교에서 5대의버스와 2개의 주유소를 불태웠다고 말했다.

한편 좌익게릴라 벤세레모스방송은 10일 또다른 대규모공세가 임박해오고 있으므로 전인민은 즉각 봉기할수있는 태세를 갖추고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루·콜롬비아 大統領官邸

연쇄爆發사고…건물·車大破

【리마11日AP UPI=聯合】페루수도 리마의 페르난도·벨라운데·테리 대통령관저에 11일폭탄 여러발이 날아와 관저건물이 크게부서졌다고 경찰이 밝혔다。이 사건으로 관저건물의 쪽지붕이 부서졌으나 테리 대통령부처는 무사했다。경찰은 이사건과관련 오스트리아인 1명등 6명의혐의자를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날이밖에도 리마시내에서 30여개의 폭발사고가 발생、곳곳에 정전소동이 벌어졌으며 자동차공장、백화점등이 파괴되었다.

【보고타11日AP UPI=聯合】폭약이 장치된 자동차 1대가 10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대통령관저앞에서 폭발、최소한 5명이 부상했다고 경찰당국이 발표했다.

경찰은 2명의 괴한이 티놀12형 자동차를 버리고달아난지 수초후에 자동차가 폭발했다고 밝혔는데 이폭발 사건은 훌리오·세사르·터베이·아얄라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좌익게릴라들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아얄라 대통령은외출중이었다가 사고 수분후에 관저에 돌아왔기때문에 무사했다。경찰은 이사고로부상자가 발생한외에 관저담벼락과 인근건물의 창문이 부서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좌익테러단체인 M19게릴라들은 사건직후 한방송국에 전화를걸어 이날사건은 자신들의짓이라고주장했다。M19게릴라들은 그동안 오는14일의 의원선거및 5월30일실시예정인 대통령선거를 교란시키겠다고 경고해왔다.

베이루트右翼지역서 爆彈터져

【베이루트10日聯合】베이루트시北쪽 右翼지배지역에 있는 카페들판에서 10일 두개의 폭탄이 연쇄폭발、적어도 10명내지 12명이 부상했다고 右翼 팔랑해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의 폭발사고가 적어도 17명이 사망하고 약 1백20명이 부상했던 레바논의 左翼지배지역에 발생한일련의 차량폭발사건에 뒤따라 일어난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사고의 부상자들은 대부분베이루트北쪽 12㎞지점에 있는 주크해안지역의 한 카페밖에서 일어난 첫폭발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폭발사고는 첫폭발사건발생 20분만에 현재 右翼기독교민병대의 거점이 된 베이루트北쪽 15㎞ 해변마을 조우니의 한 카페밖에서 발생했으나 피해는 경미한것으로 알려졌다.

中共、越간첩선拿捕

【北京10日UPI=聯合】중공은 남지나해에서 베트남간첩선 1척을 포획했다고 북경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남지나해의 파라셀군도 주둔 중공군이 지난 4일 베트남인 10명이 타고있던 간첩선을 포획했다고 보도했다.

이 베트남선박포획사건은 지난3일 베트남 군함정들이 중공어선들에 포격을가해 1척을 격침시키고 다른두척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지 하룻만에 일어난것으로 中共은 베트남측이 이사건에서 불에탄 中共어선1척을 끌고갔다고 주장했었다.

"油價下落에 도취 안심하면 80년대 後半에 새오일쇼크"

IEA전무、消費國들에 경고

【파리10日AP=聯合】석유소비국들은 현재의 유가하락에도취、자만에 빠질경우 80년대후반에 또다른 오일쇼크위험을 안게될 것이라고 울프·란츠케국제에너지기구(IEA)전무이사가 10일 美의회에서 전망했다.

란츠케전무이사는 이날 美의회 청문및 인공연료小委에서 이같이 말하고 석유소비국들은 에너지다변화와 비축계획을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英·노르웨이의 調整뒤이어

나이지리아 油價대폭引下

배럴當 5·5弗

【뉴욕10日UPI=聯合】고유가산유국가운데 하나인 나이지리아는 현행 배럴당 36·50달러인 자국산원유가를 최고5·5달러 인하할 계획임을 석유 구매국들에 밝혔다고 미국석유업계 소식통들이 10일 말했다.

나이지리아의 이같은 유가인하계획은 오는19일 빈에서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에대해 유가인하압력을 가중시킬것으로 보인다.

非OPEC회원국인 영국은 지난주 북해산원유가를배럴당 31달러로 4달러인하、북해산원유와 비슷한 유질인 나이지리아산원유가의 인하를 불가피하게 했었다.

한편 노르웨이도 9일 英국의 뒤를이어 북해산원유가를 배럴당 31~31·50달러로 인하조정했다.

◇빈到着한 가다피　리비아 혁명평의회 의장 무하마드·가다피가 10일 오스트리아의빈에도착、환영인파를향해 손뼉을 치고있다。옆에 브루노·크라이스키 오스트리아수상이 서있다。【빈10日AP電送=聯合】

先進國들 原油備蓄러시

●인도네시안·업저버(인도네시아·10日字)

美國은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의 모처에 있는 소금동굴에 막대한 양의 원유를 열심히、그러나 조용히 저장하고있다.

저장목표량은 7억5천만배럴이며 이미 3분의1은 달성됐다。전체목표량이 달성되면 미국은 하루 2백만배럴에 달하는 수입원유 없이도 1년간을 지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말해 저장목표가 달성되면 미국은OPEC가 어떤 가격정책을 취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않게된다는 말이다.

일본의 원유저장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있지않으나 일본역시 원유를 비축중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은일이며 서독역시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필요한것은 OPEC가 선진공업국의 압력과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유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世界의社說

美製장비武裝은 自滅의길

●워싱턴·포스트紙(美國·10日字)

미국의 對요르단 무기판매 문제는 군사균형과 관계가 있다.

中東에서의 군사균형은 역내국가의 군대와 전쟁수행능력뿐아니라 국가의 정신상태까지도 저울질하는 불안한 평형상태에 있다.

요르단이 미제무기를 구입하게될 경우 용케도 중동전의 전화에 휘말리지 않았던 이나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취하게끔 유도하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른다.

엄격히 말해서 요르단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군사안보와는 거의 관계가없다。요르단이 전쟁에 이기기위한 힘을 기르기위해서 미국에 무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감싸고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늦추기위해 무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력반대하고 아랍국가 또한 계속 고집할경우 자연히 미국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누그러뜨릴수밖에 없는 것이다.

外信안테나

◆게바라、35% 지지로 승리=과테말라선거위원회는10일 집권당인 인민민주전선연합의 대통령후보 아니발·게바라장군이 지난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5%를 획득、승리자가 됐다고선언했다。【과테말라시티=聯】

◆中共、부수상에 萬里·姚依林내정=중공이 행정개혁으로 현13명에서 2명으로축소된 부수상직에는 萬里(66·현수석常務위원 부수상 黨중앙서기)、姚依林(65·현국가계획위원회 주임 黨중앙서기)이 내정됐다고 일본의東京신문이 믿을만한 중공소식통을 인용、북경발로 11일 보도했다。【東京=聯合】

◆브레즈네프아들公職복귀=최근소련권력층내부의권력투쟁설과관련、공직에서강제사임됐을것으로 알려졌던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아들 유리·브레즈네프가 10일 대외무역제1副相직에 복귀、공식업무를 재개했다.

소련대외무역성의 예프게니·주코프대변인은 유리·브레즈네프(49)가 그동안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10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에 나돌던 공직사임설을 일축했다。【모스크바=AP】

輸出상품 不合格率 무려4·7%나

공산품수출검사 불합격률이 선진국의 2~3%보다 높은 4·7%에 달해 수출상품에대한 품질향상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공진청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동안 수출상품 검사액은 84억6천5백만달러에 달했는데 이의 4·77%인 4억4백만달러가 수출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海外토픽

比 개고기物議 美議會로 飛火

개고기요리를 둘러싸고 지난해 대처 영국수상과필리핀의회사이에 잠시 시비가 오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美의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8일 일리노이주출신의 初選 다니엘·크레인의원(공화)은 美하원본회의 발언을통해 필리핀의 개도살풍습을 폭로하면서『인류의 양심』을 내세워 이러한 풍습은 없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크레인의원에 의하면 거의 25만명의 미국인들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앞으로편지를 보내 개살육시장을 폐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런 도살풍습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채택、발송하자고 제안했다.

美하원이 과연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여유가 있을는지 아직 알수 없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씩이나마 세상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사실 개고기식용은 비단 필리핀에 한한 얘기가 아니고 베트남등 동남아일대에널리 퍼져있는 풍습이며 이점을 크레인의원도 인정하고있다.

내셔널·인콰이어러誌는지난 1월19일자 기사를 통해 필리핀의 개취급방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데 이잡지는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의 현지조사를 인용、필리핀에서는 법률로 개고기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매년50만마리가 도살돼 인간의 술안주로 제공되고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聯合】

波、알콜中毒百万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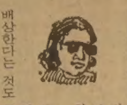
★酒類배급제 實施 불구

酒癖의 나라 폴란드에서는 약 1백만명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지경에 놓여있다고 관영 P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이통신은 부수상 예르지·오즈도프스키가『수개월동안 주류배급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콜 중독증세를 퇴치하지 못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바르샤바=AP】

◇풍선 바리케이드　서독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바다표범가죽의 수입에 항의、2천개의 풍선을띄워 본의 농업성 입구를 봉쇄했다。그린피스는 또서독에있는 10개의 바다표범가죽상점들에도 풍선을사용、입구를 차단했다。【AP】

메아리

550만弗의 誤診



최선을 다했다고 언제나 완전무결할수는 없다。과오나 실수는 있게 마련이다。그러니 우리는 神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흔히 한탄하게 된다.

誤診이란 의사에게 악몽이며 징크스와 같다。단 한번의 오진도 없는 名醫란 환상의 존재일것이다。드러난 例의 하나로 일본 東京大의 명의로 알려진 오끼나까란 의사는 정년퇴임때 그의 오진율이 14·2%라고 고백했다。일반은 그 명의의 오진이 그렇게 많았나하며 놀랐고 의사들은 오히려 적다고 감탄했다。의사와 환자의 거리를 실감케 한다는 例話다.

의료 최선진국 미국에선 의료분쟁이 갈수록늘어난다。『의료트러블』에 대응、의사들은 의사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사고가 잦으니 보험료도 치솟는다。계약경신이 어려운 의사가 나오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州같은 『분쟁多發』지역을 떠나 미시시피나 인디애나로 이동한다。뉴욕에선 한해 3천명이 개업지역을 옮기기까지했다。개업을 피해 공중위생서비스업으로 轉身하는 의사도 나왔다.

의료사고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료태도가 이른바「保身의료」의 형태를 보인다。법적추구가 두려워 환자를 치료할때 되도록 많은 검사와 前處置를하여 클레임을 막는 것이다。이런 처사가 치료비상승의 한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의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엔 의료보호연맹(MDU)、캐나다엔 의료방어협회(CMPA)라는 기구가 있다。의료분쟁에 의사들이 이렇게 골치를 썩이는 것은 뒤집어 보면 환자의 권리가 그만큼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녹내장을 감기로 오진、우리교포여인을 실명시킨 뉴욕병원이 5백50만달러의 거액을 배상한다는 것도 환자권리보호의 단면을 일러준다。빛을 잃은 쓰라림이 돈으로 보상될수는 없지만 의료제도의「先進」이 어떤것인가를 이기회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사고가 늘고있다。60년부터 79년까지 일어난 의료소송은 68%의 유죄율을 보였다。醫協조사는 의원66%가 분쟁경험을 겪은것으로 나타났다。의사와 환자의 고통을 함께 덜어줄 제도의 장치가 있어야겠다.

심령대부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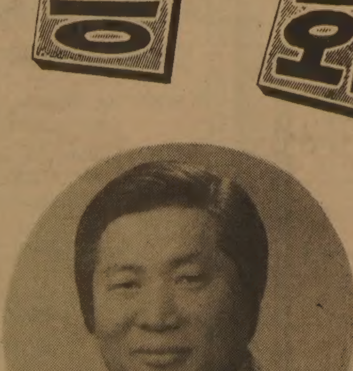
★일시 : 3월 25일(목)～3월28일(주일)

▲매일저녁 7시
▲성경공부 토요일 낮 11시
▲일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낮 2시, 저녁 7시30분

▲연락처 ☎ :
881-7162,
431-9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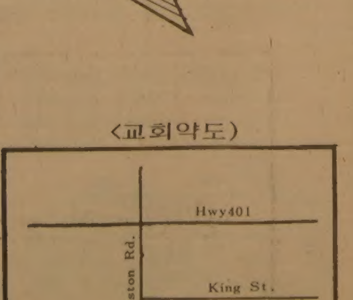
강사 : 김혜성 목사

나성영생교회담임
미주대회신학학장



강사 김혜성 목사

(교회약도)



★장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1KING ST.WESTON 담임목사 : 이 필 주

原書 複寫版보다 싸게판다

美출판사 "60%할인" 도전에 國內업계선 "아직은自信" 맞서

大學教材등 대상…교수·학생등 환영

◇미국의 대형 外書출판사와 한국의 原書복사판업자간에 「시장쟁탈전」이 벌어지고있다. (사진은 한국의 外書판매서점)

우리나라 각대학이 사용하는 外書교재와 외국전문서적은 대체로 값싼복사판이다. 이 복사판은 국제적으로 불법이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연구원·대학교수등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의 복사판출판을 보고 참다못한 미국의 대형출판사가 한국시장에 직접개입, 原書를 복사판가격보다 더싼값으로 공급하여 국내 복사판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싸움은 신학기를 눈앞에둔 지난2월중순부터 미국의 맥그로힐社가 原書 24만달러 (약1억6천8백만원)어치를 한국시장에 직접풀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맥그로힐사는 원서를 정가의 50~60%를 할인한가격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국내의 복사판 가격보다 싼것이어서 한국의 복사판업계가 死活을 걸고 맞서지않을수 없게되었다.

외국서적 수입상인 汎文社와 汎韓서적을통해 4백여종 5만여권의 원서를 할인가격으로 내놓은 맥그로힐·인터내셔널사는 전세계에 지사를 갖고있는 대형출판사인데 이번 한국복사판업계와의 한판을위해 이미 지난해 도오꾜의 자매회사인 맥그로힐·고가꾸(好學社)의 사장을 서울에 보내 국내복사판업계의 현황을 조사해갔다.

이에따라 할인된 가격을보면 핸더슨의 「微觀經濟學」이 9달러 (약6천3백원) 에서 2달러80센트 (약1천9백60원)로, 홀맨의 「熱傳導」가 9달러90센트 (약6천9백30원)에서 3달러95센트 (약2천8백원)로 팔리고있다.

맥그로힐사는 또 서울대학교「大學新聞」을 통해 『여러분의 진학과 입학을 축하한다. 세계적인 대학교재공급사인 저희 맥그로힐 好學社가 다음과같이 특별한 가격으로 학생여러분에게 봉사해드립니다』는등의 광고까지 하며 판매작전에들어가자 塔출판사(대표 金炳喜)등 30여개 복사판출판사로 구성된 韓國外書出版協議會측도 40%가격인하로 맞서고 있다.

맥그로힐사의 전문서적복사판을 중심으로 판매하고있는 대형복사판전문서점 光文社의 金重喜전무는『맥그로힐사의 처사는 이해가 가지만 이는 한국복사판업계의저력을 과소평가한 탓』이라며 정식외서수입은 몇달씩 기다려야 하고 값이 비싸 이미 10여년간 복사판출판은 각대학 대학원 연구소등의 주문을통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서적출판과 외서복사를 겸하고 있는 한 출판사대표도 『우리는 나름대로 학문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기반을 잡은 일부회원들은 해외출판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법에 의해 기존업체로서 적절한 인정과 보호를 받기 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서적의 불법 복사는 해외출판사의 관점에서 불법이지 국내에서는 일반 번역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법의 영역밖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같은 양측의 싸움덕분에 수요자들은 漁夫之利를 얻게되는 셈인데 한국에서 복사판으로 연60만달러 (약4억2천만원)의 손해를 보고있다는 맥그로힐이 도오꾜의재고품목까지 동원해서 내년까지라도 이 경쟁을 할뜻을 비치고 있고 한국복사판출판업계도 『이제는 복사출판계도 매우 커져서 그런 정도의 가격경쟁으로는 큰 타격을 입지않을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어 승부는 쉽게 끝날것같지않다.

新舊教 지도자모여 教界新風 논의

사랑·親交의 共同體 이뤄야

「基督教新風운동」 창립12돌 세미나

金壽煥추기경 처음 참석 主題강연

기독교에 新風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가릴것없이 교회지도자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아 경신과 일치를 향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것. 목사 신부등 젊은 성직자들이 안으로는 교회경신과 밖으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對話 親交 研究할것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한국기독교 新風운동」(회장 許相吉 목사 총무 趙誠基목사)이 11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창립12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나란히앉은 教界지도자 다음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비전과 과제를 주제로열린 한국기독교 新風운동주최의 세미나에서 金壽煥추기경과 姜元龍목사가 나란히 앉아있다.

信徒는 개인주의적信仰 반성을

84년을 분수령으로 선교사상 또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맞는 한국기독교의 지나온 발자취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선교방안을 모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톨릭의 金壽煥추기경이 주제강연을 맡아 교계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世紀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비전과 과제」란 제목으로 강연한 金추기경은 이민족과 이사회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돼야할 한국교회가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의해 오염돼있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종으로서 얼마나 가난한 봉사자의 이미지를 주었는가? 얼마나 부와 허영과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반문했다.

金추기경은 사람과 진리와 정의로써 사회변혁에 이바지해야할 교회가 혹시 교회발전, 하느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참된 믿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형화 또는 기업화현상은 없었는가를 조심스럽게 거듭 되물었다.

개신교 천주교를 통틀어 기독교가 교육 의료 문화 청소년지도 자선사업등 많은 사회봉사를 펴왔으며 믿음을 통해서 양심적으로살고 사회의 모범이된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 金추기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를본받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닮으려고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金추기경은 교역자들이 교회의 분열현상, 교단간의 불목, 지도자간의 갈등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세계를 향해서 열린 믿음과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것이 바로 다음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비전이요 과제라고 밝혔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타인과의 유대를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음을 분명히한 그는 사랑의 肉化인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교회사역자의 사명인이상 형제로서 교회일치가 또한 부여돼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원장 姜元龍목사도 이날 개회설교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회개하라고 전제한다음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가 기독교신앙의 토대인데도 요즘 성령운동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성부와 성자를 녹여 없애버리고 샤머니즘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출애굽사건을 강조함으로써 정치범예수를 지나치게 부각하는일은 정치화 또는 세속화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이같은 변질은 기독교의 이름만 가졌을뿐 異教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聖靈운동의 샤머니즘化 우려지적 分科토의선 「종합神學大」 설립안도

이날 세미나는 주제강연에 이어 5개분과로 나누어 발제·논찬·토론순서로 진행됐다. 분과별로는 閔庚培교수(延世大)가 「한국 교회의 역사적비전」이란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독교가 전래된이래역사적변화에 대응하며 그때마다 민족에게 비전을 잘 제시해주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투쟁적인 교회이미지가 아닌 화해와 협력과 가치지향적인 교회상을 수립할것을 촉구했다.

제2분과에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과 교회성숙론」에대해 朴根遠교수(韓神大 학장)는 교회성장무드속에 교인들의 신앙적자세가 지나치게개인주의화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는 新福신앙이낳은 부산물이거나 盲信을강요한데서 생긴 결과라고 풀이했다.

李鍾聲교수 (長神大학장)는 「한국신학의 형성과 교회일치운동의 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교회가 일치로 나가기위해서는 對政府 對社會 창구를 하나로 할것, 선교운동과 사업단체운영을 범교단화할것, 종합신학대학을 만들것등 구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분과별 발제강연은金容福박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가 분단상황에 있어서 사회선교의과제 柳東植교수(延世大)가 한국문화형성과 기독교에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국기독교 新風운동은 ▲교회경신과 일치운동을 주도하고 ▲한국문화창조를 위한 기독교의 기여와 책임을 밝히며 ▲분단상황의 인식과통일이후의 對北韓 선교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70년 개신교·천주교의 30대 젊은 목사 신부들이 시작한 모임. 참여교단은 예장 통합 기장 기감 기성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나사렛성결회 그리스도의교회 복음루터교 순복음 천주교등이고 현재2백68명의 회원을 거느리고있으며 12년을 지나는 동안 창립당시 30대 초반의 발기인들이 모두 교계의 중진들로 성장했다.

新風운동을 주도하고있는 이들은 한국교회의 방향설정을 바람직한 모델로 창출하는 동시에 기독교정신하에 화합을 중시하고 교회일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삼자고 거듭 다짐했다.【李忠雨기자】

幻想의 電子 바이얼린

스트라디바리우스와 音質 비슷 音樂교수등이 제작…겨우1千弗 쉽게 演奏할수있는 장점도있어

◇스트라디바리우스의音을 그대로 살려 제작된 새로운 전자바이얼린.

세계 최고의 바이얼린으로 꼽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똑 같은 음향과 음질을 내는 전자 바이얼린이 제작돼 음악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안토니오·스트라디바리가 고안해낸 名器로 풍부하고 기름지면서도 밝고 순수한 음향으로 세계 바이얼리니스트와 음악감상가들의 선망을받아왔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악기답게 값이무척비싸 한대에 30만달러 (2억1천만원)가 넘어 가난한 음악가들은 평생동안 한번도 만져볼수조차 없는 貴族의악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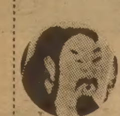
세계의 악기제조업자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속에 감추어진 「音의 秘密」을 찾아내기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악기의 나무와 弦과 바니스 (칠) 등을 실험 분석했으나 아무도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었다.

최근 제작돼 나온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진 음향과 음질을 그대로 내는 전자 바이얼린은 음향학기술자 맥스·매튜, 음악교수 리처드·무어, 바이얼리니스트·야노스·네게시등 3명이 합작해 낸 것으로, 각 弦마다 전기에 의한 音增幅器를 달았고 음을 전자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을 부착했다.

전자바이얼린은 비록 전기의 힘을 이용하지만 음색과 음량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것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부하며,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그밖의 바이얼린보다 연주하는데 힘이 덜 드는 장점도 있다. 또한 소규모의 작은 실내악에서부터 대규모의 야외 연주회까지 광범하게 쓰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

이 악기의 기술적인측면을 담당한 맥스·매튜는 『음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音의 質과 量일뿐이지 그것이 전기의 힘인가, 나무속에 감춰진 비밀인가는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전자 바이얼린을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악기가 가진 최고의잇점은 무엇보다도 값이싸서 2억원이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2천8백분의1정도의 값도 되지않는1천달러(70만원)이다. 【뉴스위크誌】

史의名言



본명潛, 五柳선생이라 自稱, 靖節선생으로 불리었다. 東晋의 大詩人으로 그의 詩風은 平淡深趣, 자연스러운데다 逸氣가 넘쳤다. 또한 老莊사상을 받아들여 樂天的이고 상상력이 뛰어났다.

부귀를 원치않으며 宰卿은 생각조차 없노라.

× × × ×

富貴를 원치않으며 宰卿은 생각조차 없다

陶淵明 〈362~427〉

陶淵明은 중국學藝의 全史를통해 완벽히 조화된 圓滿無碍의 인격으로친다. 별 顯官의 경력이있는것도아니고 권세나 세속적 공명이있지도않았으며 남긴 저서라야 약간의 詩篇과 두 셋의 論說이있을뿐이나 죽은지 천유여년이지난 오늘에도 그인간은 찬연히 빛나는 光芒이며 후대의 群少詩人과 문인들에 최고의 人間性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상징이돼있다.

그의 생활인즉, 詩風에있어처럼 眞率한맛이 스며나 젊고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畏怖의 대상이됐다. 오늘 그가놓인 위치는 진실로 인생을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시없는 典型이라불린다. 까닭인즉, 그의경우 세속적 욕망에반항했다고는하나, 거기서 도피한것도 官能을 버린것도아닌 생활과 어디까지나 조화를 이뤘기때문이다.

中國엔 약2백년에 걸쳐 文學的浪漫主義, 閑適生活을 구가하는 老莊熱, 즉 유교에대한 반역이 유행했으나 결국 다시 왕년의 유교철학과 협력, 陶淵明에서 보는것같은 조화적 성격을 가능케했다. 그는 몹시 술을 좋아했기에 얄구진 人生을 보내게된다.

官員을 팽개치고「歸去來辭」를 남긴채 한낱 貧農의 생활을 보내며 仕官의 권유를 몇번이고 물리쳤다. 그는 자식들이 여느 사람들처럼 월급장이가 되는것을 한탄,그들에보낸 글에서 애비로의 哀愁를 표하기도했다.

貧하되 高邁했기에 여느사람들과만나기를 극도로 꺼렸으며 無得無憂의 일개貧農詩人, 현명하고 활달한 老翁으로 세상을하직했다.

그를 隱者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진않다. 피하려던것이 정치였지 인생 그자체는 결코 아니었다. 그에겐 위대한 人生愛가 있었고 처자식은 너무나 참된 존재였다.

생을받은 인간으로 그의 결의는 인생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오직 가족 곁으로 돌아간것뿐이다.

그가 바란것은 調和였지 反逆이아니었다.

테너 辛英朝 독창회 15일에 국립극장서

테너 辛英朝독창회가 15일 하오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슈베르트의 가곡중에서「밤과 꿈」「리라에게」「저녁노을속에서」등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래들과 우리나라 가곡 「파랑새」「초롱꽃」「버드나무의 율동」등을 섞어 부른다. 피아노반주는 金明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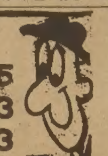
李彌勒 유품전시회 19일까지 獨文化院

李彌勒유품전시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獨逸문화원에서 열린다. 1899년 海州태생인 李彌勒은 3·1운동에 가담한후 上海를 거쳐 독일로 망명, 그곳에서「압록강은 흐른다」등의 작품활동을 하다 1950년 별세했다.

이 전시회에서는 그의 유고와 사진및 그에관한 친지들의 글이 선보인다.

出版文化協 공청회

출판문화협회 (회장 閔泳斌)는 17일 강당에서 저작권법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구독신청은 533-2361

英姬연극상 수상자로 연극배우 鄭賢씨선정

국제극예술협회(ITI) 한국본부가 제정한 제8회 英姬연극상수상자로 연극배우 鄭賢씨 (37·사진)가 결정됐다.

올해 수상자 鄭씨는 64년 실험극장연구생으로 시작, 민예창단멤버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민예극단대표 배우로활동하는 18년경력의 중견연기자.

시상식은 27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리는 「제21차세계연극의 날」 기념식상에서 열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㊺

그렇다고 목이가 일찌거니 대갓댁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에까지 환멸을 느낀건 아니었다. 대갓댁의 그것은 아직 환멸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완전한 미지(未知)였다.

입시와 발표가 끝나자 영광학원 중입반은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낙방생은 예상대로 극소수였고, 하나같이 선생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 아이여서 신경쓸필요가 없었고, 합격생을 위해 자축회를 연다 선생님들의 노고와 입시전략의 적중을 치하하기위한 파티를 연다 시끌시끌 지칠줄 모르고 법석을 떨었다.

이런 즐거운 법석은 즉각 대외적으로 학원선전에 이용되어 새로 생긴 낙방생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속속 모여들었다. 목이에겐 설 사이가 생길듯 생길듯 하면서도 안생겼다. 금년에 올린 놀라운 기록으로 도표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영광학원의 쟁쟁한 강사진과 최상의 면학분위기에 대해 선전하는 일은 목이의 몫이었다. 모든영광은 영광학원의것이었고 과도기의 지저분한 잡무는 몽땅 그녀의 것이었다.

밤에 넘어처럼 지쳐서 잠자리에 들려는데 바로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열어보니 불행히도 낙방한 극소수중에 든 아이가 울고 서있었다.

『너 미순이 아냐? 웬일이니?』

미순이는 목이에게 왈칵달겨들어 큰소리로 흐느꼈다. 누가 들을까 겁이나서 목이는 우선 미순이를 방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닫았다. 미순이는 더욱 큰소리로울었다. 목이는 당황하지않고 지켜보았다. 피곤했기 때문에 빨리 달래서 돌려보내고도 싶었지만 달랠수록 울음발은 길게 마련이라는 걸 알고있었다. 저절로 울음을 그친 미순이가 계면쩍은듯이 물었다.

『여기서 자도 돼?』

『안돼』

『왜?』

『선생님들한테 들키면 너는 야단이나 맞으면 그만이지만 난 여기를 쫓겨나게 될걸』

뜻밖에 미순이가 배시시웃으면서 말했다.

『언니는 딴 사람들하고 참 달라』

『물론이지. 나는나대로 딴 사람이니까』

『사촌언니한테도 갔었고 친구네도 갔었어.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며칠만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다들 부모님이 집에서 걱정하신다고 나를 쫓아내지 뭐야. 웃겨. 우리 엄마 아빠 걱정대신 자기 걱정한건 언니뿐이야』

『내가 너네 엄마 아빠 걱정은 왜 하니?』

『맞았어』

미순이가 언제 울었더냐싶게 신이 나있다.

『너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죽기보다도 싫어』

『그래? 제법 결심이 확고한데. 친척이나 친구한테 신세 안지고도 집에 안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가르쳐만 줘』

미순이의 얼굴에 불안이얼핏 스쳤지만 목이는 모르는척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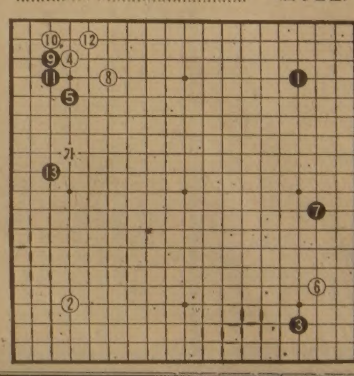
『내가 잘 아는 고아원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는 네 멋대로 살수가 있을거야. 아무도 네 걱정 안해줄테니까. 내가 널 거기다 넣어줄수가 있는데, 어때 생각있어?』

『고아원? 싫어, 싫어』

미순이는 고아원이란는 끔찍한 괴물이 당장 어디서 달겨드는 줄 아는지 진저리를치면서 목이 품으로 뛰어들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1譜 1~13 (각5시간 덤5집반)



白 (4段) 姜 勳〈3勝0敗〉

黑 (7段) 河燦錫〈2勝1敗〉

姜4단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覇王戰도전자가 되어 曹薰鉉8단과 격돌했으나 역전분루한 보람도없이 3대1로 패퇴했다. 전번에는 3대0스트레이트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단한판이라도 執白勝한것이 커다란 위안거리이고 또 그만큼 棋力이 향상된 증거라 보겠지만 아직도 역부족인감이 있는것 같다.

비록 그렇지만 현재 曹薰鉉의 아성에 匹馬單槍으로 돌격하고 있는것은 사실. 멀지않은날 정상의일곽을 기필 차지하지 않나 여겨진다. 뭐니뭐니해도 혈기방창한 나이인데다 무서운 투지와 집념에 있어 그를 앞지를만한 기사는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 때문이다.

名人戰에서도 이미 3승0패, 파죽지세로 독주하고있다. 앞으로 3승1패인 徐奉洙7단, 張秀英6단 그리고

姜4段 破竹之勢

이바둑의 상대인 河7단등 험산준령이 남았지만 지금의 상승세는 한말로해서 「막강」인 까닭에 일단 유망주로 손꼽아 무방할것이다.

우선 黑1, 3과 白2, 4가 同形이어서 이채롭다. 다음 黑5, 白6, 黑7이 또 묘하다. 白6을 들어내고 보면 물론 中共式이다. 그러니까 黑5로 7에둔데에 白6으로 걸친것과 꼭 같게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黑5에대한 白6은 일종의 변칙수단으로 보는 모양이다.

좌우간 黑7협공으로 우상쪽에 黑세가 생길것같으니 白8은 귀를 지키면서 그黑세를 사전에 삭감하는 일석이조. 黑9를 손빼면 白「가」의 준엄한 협공을 당하거니와 실전처럼 黑9이하 13까지의 정석으로도 河7단은 불만이 없다는 판단. 黑9로 우하귀쪽 白6을 공격하면 어찌되나, 다음보에서 알아본다. 【一凡】

文化短信

月峰著作賞 수상자 金杜珍교수를 선정

月峰 韓基岳선생기념사업회(회장 李熙昇)는 제8회 月峰著作賞 수상자로 「均如華嚴思想研究」의 저자 金杜珍교수(사진·國民大)를 선정했다. 상금은 1백만원. 시상식은 오는 4월10일 하오2시 출판문화회관에서 갖는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M. Arch. O.A.A.

개 업 안 내

지난10년간 토론토에서 캐네디안의 건축설계 사무실에 근무하여온 본인은 이번에 온타리오주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아래 장소에 다음에 적는 사람들과 협동의 관계를맺고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 D. Ferguson - Mech. Engineer
- D. Naylor - Mech. Engineer
- S. Simek - Struct. Engineer
- C. Clark - Architect

약 력

- 1964 - 경기 고등학교 졸업
- 1968 -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 1971 -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
- 1972) 토론토에서 캐네디안
- 1982) 건축설계사무실 근무

161 EGLINTON AVE. E. , SUITE 702
484-4895, 484-6110 (B) , 492-7472(R)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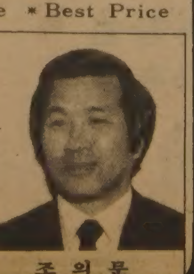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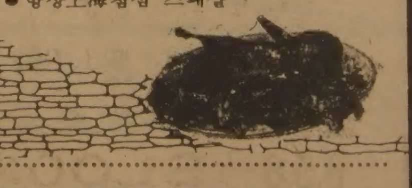


조 의 문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폐샬(Peking Duck & Firepot)

- 진미의 해산물 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폐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 ~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나의 이력서 ⑩

〈題字·金蘇東〉

金蘇東

詩人 李箱

삼촌댁 寄宿때 만난 유일한벗 밤새우며 음악·영화까지 討論

졸업반인 고보5학년은 모두 제나름대로 진학의 꿈을 안고 이듬해에 전개될 치열한 입시백일장에 대비하던 시절이다. 개나리꽃이 만발한 총독부뒷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사색의 꿈에 잠기곤했다. 인적이 고요한 북악산 기슭의 황폐한 광장을 둘러싸고 서울의 봄소식을 제일먼저 전하는 개나리꽃이 노란물결을 이루고있는 산길이다.

책보를 바위에 놓고 고개를 들어 미래의 하늘을 쳐다본다. 오색구름이 영롱한 화려한 꿈들이 마구엄습해온다. 이 언덕에앉아 하학길오후에 마치 시인이라도 된것처럼 그무료한 시간을 보내곤했다.

적선동옆에 通洞이 있다. 후일「날개」를 쓴 李箱(본명金海卿)과 같이 그의 삼촌댁에 기숙하고있을때다.

그림과 문학을 좋아하는 이 경성高工을 갓나온 총독부건축기사와는 취미와 생각이 같은 탓인지 격별히 가까운 말동무가 됐다. 고호와 쿠르벨을 논하고 시와 음악과 영화를논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당시 신불란서문학 즉 슈르리얼리즘과의 시를 탐독하던 그는 고독하고 울울한 나날을 그 좁은 방안에서 80노모와 함께 지냈다. 호도나무고목에서 우수수 낙엽이지는 가을밤에 그는 잠든 어머니의 늙은얼굴을 자주 데생했다. 자정이 넘은 고요한 밤에 나는 시험준비를 잠깐 멈추고 이상의 방으로 내려가곤했다. 코코아 한잔을 끓여놓고 2시 때로는 3시가넘도록 우리는 새로운 예술에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당시 일본문단에는 새로운 현대시를 주제로 하는「시와 시론」(詩와 詩論)이라는 책이 월간으로 나왔다. 장·콕토를 필두로 프랑스 문인들이 내세우는 신불란서문학 즉 초현실파의 표현형식을 연구하는 출판물이다.

하루야마(春山行夫)、기다가와(北川冬彦)、안자이(安西冬衛)등이 모여서 새로운 시론을 주장한 책이다. 에세이와 시와 프랑스시의 번역이 섞어서 새로운 사조와 새로운 시의 세계를 주창하던 하나의 시대적 경향이었다.

이상은 그러한 시와 문장을 진지하게 수긍하면서 글을 썼다. 마치 다다이즘을 방불케하는 문학이다. 어구의 배열을 무시하고, 문맥을 잃은 문장의 나열과 전후가 전도된 의미의 혼란이라고나할까. 어쨌든 무의식속에서 추상적 단어를 표현의 도구로 삼고, 자유와 방종속에서 하나의 예술을 창조하려했던 다다이즘의 형식과 비슷한 것이었다. 하나의 독보적인 경향이라하겠다.

이상은 그러한 자작시를 내 놓고 밤이 늦도록 그표현의 개념과 방향과 이론을 역설했다. 영화 골드·라슈에 담긴 채플린의 휴매니티에 관해서 그가 겪고있는 인간의 고독감을 말했다. 내가 동경으로 유학을 떠날때까지 1년반 그와는 흉금을 털어놓고 내가 걸어가야할 길에 대해서 논의했다.

통동에서 화동까지 매일 꼭 같은 길을 왕복했다. 서울한복판에 살면서도 통학하는 길은 노목이 우거진 그윽한 산길을 가는 기분이었다. 북악산 숲속을 지나 삼청동, 팔판동을 지나 화동까지는 걸어서 약 20분의 거리다. 망중한, 동중정의 격으로이 길을 동창 趙洪九, 洪祐學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걸어다녔다.

호도나무잎새가 우거진 뒤뜰에서 이상과 더불어 미술과 문학과 음악과 영화예술을 논하던 52년전 추억의 파노라마를 나는 그대로 현재까지 붙들고 늘어진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큰 변동이없는 내예술에의 행로가 환히 뒤돌아 보이는 까닭이다.

가난한 이상이 삼촌댁에서 노모와 같이 우거하던 1930년 겨울 어느날『꼭 동경으로 가야하나』『그럼 가야지』그는 반문하고 또 긍정했다. 서로 헤어져야하는 결별의정을 이상은 그렇게 표현했다. 그해도 저물어 갔다. 예술은 예술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확고히 분리하고 나는 대학입시준비에 분주한 나날을 통동하숙에서 보냈다. 남의 잘못을 벌하는 편이 되지말고 남의죄를 용서하고 도와줄수 있는편이 되라는 엄친의 말이 늘 나를 채찍질했다. 검사나 판사가 되지말고 변호사가 되라는 뜻이다.

법학도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호젓한 겨울밤을 통동하숙방에서 보냈다. 초록은 동색이란말이 있다. 이상과 나사이의 화제는 끝이 없었다. 문학과 영화에 걸친 풍요한 야화들이 긴 겨울밤에 오갔다. 그러한 정담속에서 1931년3월 내가 동경으로 떠나기까지 이상과 기거를 같이한 일들이 어제와 같다.

◇「날개」를 쓴 李箱。나와 그는 1년반동안 그의 삼촌집에 기거하며 시와 음악과 영화를 논하곤 했다.

야구위원회 / TV방송사

프로野球 중계료놓고 攻防

"4億원線 양보 못해" KBO

弘報이유 더 내려야 방송사

오는27일 개막되는 프로야구의 중계권료를 둘러싸고 야구위원회(KBO)와 TV방송사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보름앞으로 다가온 국내 첫 프로야구시즌·오픈에앞서 KBS、MBC 두방송국과 TV중계권료 흥정을 벌이고있는 KBO는 82년시즌에 최소한 4억원의중계권료수입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런반면 두방송사는 처음 실시되는 프로야구중계에대한 시청자와 광고주들의 관심도, 광고수입규모를 예측하지못해 우선 좀 깎아놓고 보자는태도.

프로·스포츠에 대한 중계료지불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없으나 중계의 명분이나 중계료의 부담에 대한 해석은 KBO、방송사、광고주간에 엇갈려있다.

KBO로 보면 처음 시작되는 프로야구의 관장기구로서 자체홍보를위해 적극적으로 중계방송을 유도해야할 입장。그러나 프로·스포츠의 큰 수입원인 중계권료를 포기할수는 없다.

KBO는 불확실한 입장수입에 대한 불안을 덜기위해 당초 KBS、MBC로부터 총6억원의 중계료를 요구、6개구단에 1억원씩 중계료수입 배분계획을 세웠다가 흥정의 폭을 좁히기위해 두방송의 연간중계권료를2억원씩총4억원으로 줄여서 제시했다.

하루에 3게임이 3개구장에서 동시에 열리므로 한 방송이 중계할 수 있는 게임수를 80게임으로 잡는다면 게임당 중계료는 약2백50만원.

◁프로야구 개막을앞두고 TV중계권료흥정이 한창이다.

게임當 250만원 꼴… 18회의 광고

球團선광고료내고 이익배당받는셈

KBO는 TV 중계료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라디오중계는 중계료를 받지않고 개방하겠다고 생색을 내고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중계는 제작비를 줄이고 광고수입을 올릴수있는 一石二鳥의 프로그램.

KBS의 경우 두시간짜리「TV문학관」에 투입되는 제작비는 총 1천5백만원. 게다가 이 프로에는 광고가 없다. MBC의 50분짜리「수사반장」은 제작비 4백만원、광고수입 4백25만원가량.

프로야구의 경우 게임당 2백50만원의 중계료를 낸다하더라도 한게임에 최소한 2분씩 18회의 광고시간이 확보되어있다. 한게임에서 어느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릴수있을지 아직은 미지수. 그러나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프로복싱세계타이틀매치에 1억원에 가까운 중계료를 지출했고 중계료이상의 광고수입을 올린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프로구단중 1~2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 판매시장을 가진 기업체들이어서 결국 KBO의 중계권료가 구단의 이익배당으로, 다시 방송의 광고수입으로 돌아가는셈이다.

MBC의 경우 자기구단의 홍보를위한 중계방송에 중계권료를 내야한다는 입장.

【方錫晌기자】

日서 친선경기갖는 어머니농구회 "첫 해외원정、꼭 이겨 전통살릴터"

◇첫 해외원정 경기에 나서는 어머니농구회원들. 오른쪽으로부터 金英子 金良植 朴晶淑씨.

스포츠話題

어머니 농구선수들은 즐겁기만 하다. 日本 어머니 농구 선수들과 두차례의친선경기를 갖기위해 13일日本원정길에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 어머니농구팀이 국제경기를 갖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8월 출범한 어머니농구회는 16명의 대표선수들을 뽑아 알찬 강화훈련을 쌓아왔다.

처음에는 매주 2시간씩 연습을 하다가 요즘 훈련양을 3배로 늘려 연습하고있다. 『친선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겨야해요』 어머니 선수들은 의미있는 미소를 보였다.

60년대초 한국여자실업팀으로 처음 日本원정길에 나섰던 商業銀行팀은 8전전승을 기록했었다.

과거의 화려함에 먹칠을 해서 안된다는게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한국팀에는 5명의 전직 대표선수가 포함돼 있다. 日本도 역시 예전 대표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농구회는 이번 교류를 시발로 앞으로 日本은 물론 臺灣과도 친선경기를 가질계획. 이번 방일스케줄은 14일(교오또)과 17일(도오꾜)에 경기를 갖는다.

경기前後 소변검사

KBC 海外경기 報告의무화

한국권투위원회(KBC)는 11일 日本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약물중독스캔들과 관련、승부조작등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및 동양타이틀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KBC의무위원회에서 소변검사등 건강관리를 맡기로했다.

KBC는 이와함께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매니저는 경기전후의 상황을 귀국후 반드시 보고토록 하며、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도 A급이상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전후에 KBC의무위원회의사로하여금 소변검사를 받도록했다.

KBC는 3월말부터 4월초까지 A級선수를대상으로 정밀신체검사를실시키로했다.

臺灣 소프트볼 中共불참 시사

【北京10日AP=聯合】中共은臺灣이 오는 7월 臺北에서 열리는 제5회세계여자 소프트볼선수권대회에서 臺灣국기게양및 國歌연주를계속 고집한다면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中共黨기관지 人民日報는 이날『스포츠를 통한 反中共음모不容』이란 제하의 논평기사에서 臺灣소프트볼대회에서의 國歌및 국기문제는 『두개의 中國을 고정시키려는 음흉한 수작』으로 中共팀의 臺北行을 가로막고 있다고 선언하고『10억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臺灣은 이번 대회 개·폐막식에서의 국기게양및 國歌연주를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中共은 臺灣이 주권국가가아닌 中共의 한省에 불과하다고주장、이를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ISF는 개막식에서만 주최국 국기게양을 인정하고있어 좀처럼 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亞洲배구委 회의 來21일 워커힐서

아시아지역의 각종배구대회와 경기규칙등을 관장하는 아시아배구경기위원회(SOC)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워커힐에서 개최된다.

대한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회의에는 아시아연맹회장인 마에다씨(日本)를 비롯하여 9명의 각국대표가참석한다.

특히 이번 SOC회의서는 오는11월의 印度 아시안게임의 경기스케줄이 확정된다.

"對베니테스방어전 해글러에 3百萬弗" 프로모터 킹提議

【뉴욕10日UPI=聯合】美國의 프로복싱 프로모터 돈·킹씨는 10일 WBA、WBC 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미국)가 WBC(세계권투평의회) 슈퍼·웰터급 챔피언인 윌프레도·베니테스(푸에르토리코)와 타이틀 방어전을 가질 경우 해글러에게 3백만달러를주겠다고제의했다.

킹씨는 또 이미 해글러와 일전을 벌이기로 돼있는 前WBA(세계권투협회) 웰터급 챔피언 토머스·헌즈에게도 그가 베니테스에 도전하여 타이틀매치를 벌일 경우 2백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킹씨는 자신이 이미 해글러와헌즈의 매니저들에게 전문을보내 이같은 제의내용을 통보했다면서『둘중 어느 선수라도 이제의에 동의하기만 하면 그들의거래은행에 돈을 입금시켜 놓겠다』고 밝혔다.

해글러는 지난주 케이브먼·리를 1회67초만에 KO로 누르고 4차타이틀방어에 성공했으며 베니테스는 지난1월 노장 로베르토·두란을 물리치고 타이틀을 지켰었다.

◇銅메달의 妙技 11일 코펜하겐서 폐막된 82년도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페어부문에서 美國의남매선수 캐트린-피터·카루더스組가 묘기를 보이고있다. 카루더스 남매는 銅메달을차지했다. 【코펜하겐UPI=聯合】

邦畵「아벤고…」와「최후의證人」 칸映畵祭에 出品

◇「아벤고 공수군단」의 한장면.

제작중인 대작반공영화「아벤고 공수군단」(감독 林權澤)과 80년에 제작됐던「최후의證人」이 오는5월14일 개막되는 제35회칸국제영화제에 출품된다.

칸영화제사무국은 9일 영화진흥공사에 보내온 전문에서 邦畵「최후의 증인」의 출품신청을 접수한데 이어「아벤고 공수군단」의 출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공사는「아벤고…」의 제작이 끝나는대로 심사후 출품을 결정키로 한것이다.

칸영화제 사무국이 2편의 한국영화출품을 요청한 것은 칸영화제사상 처음의 일. 특히 2편의출품작이 반공영화이어서 남침이 빚은 6·25동란을 세계에 올바르게인식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보인다.

「아벤고…」는 제작비만도 6억원이 투입되는 대작. 6·25동란당시 仁川상륙작전을 은폐하기위해 감행했던 元山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다.

「아벤고」는 당시 활약했던 지휘관3명의 첫자를따서 지은 부대암호명. TV영화「전투」에서 불사신분대장으로 분했던 미국배우 빅·모로가 알렉산더대령역을 맡아 내한했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마누라와 난 두번째 밀월을 갖기로 했다네" "첫번째는 그리 좋지 못했거든" "그럼, 첫번 밀월을 망쳐놓은건 뭐죠?" "우리가 결혼한거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기자의눈

축소지향의 일본인

요즈음 일본에서는 李御寧교수(梨花女大)가 쓴「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책이 대단한 화제를모으고있다.

지난 1월말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TV、잡지들도 앞다투어 李교수를 등장시키고 있다.

1만부를 찍은 1판이 10여일만에 매진돼 출판사는 전국에서 빗발치듯 걸려오는 서점들의 주문독촉전화에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책이 나오자마자 일본의 평론가 다나까·아끼라(田中明)씨는 李교수가 가수 李成愛씨와 재일동포작가 金達壽씨에 이어 3번째로 일본에 한국인화제를 일으킬것이라 점친바있다.

「가슴아프게」의 李成愛씨와「일본속의 朝鮮文化」를 쓴 金達壽씨가 당시 일본에서 어느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국내에서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李씨가 일본사람들에게 그정도의 인기를 끌었고 金씨가 그정도의 충격을 주었다면 李교수는 일본인들에게 역시 그정도의「경악」을 줄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전망은 적중되고 있는것 같다.

일본인들이 그의 책을 읽고 느끼는 것은『정말 족집게같다。외국인으로서 체재1년도 채못되는 사이에…』하는 놀라움으로 집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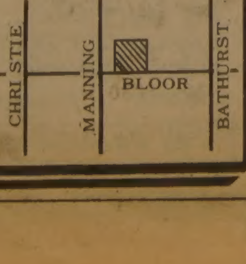
2월 어느날 東京대학에서 열린 그의 강연회에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학자、기자、PD등 지식층들이 몰려들어 보조의자를 동원하는등 대성황을이루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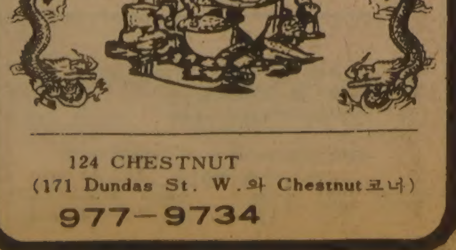
「일본인에게 보이지 않는 일본」이란 제목의강연을 통해 李교수는 예정시간을 30분이나 넘겨가며 언어생활에서 신변잡사와 생활용구、초미니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모든것을 작게 줄여』손안에、주머니안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본인의 소유충족성향과 가치관』을 지적했다. 청중들은『나루호도(과연)!』를 연발해가며 웃고 박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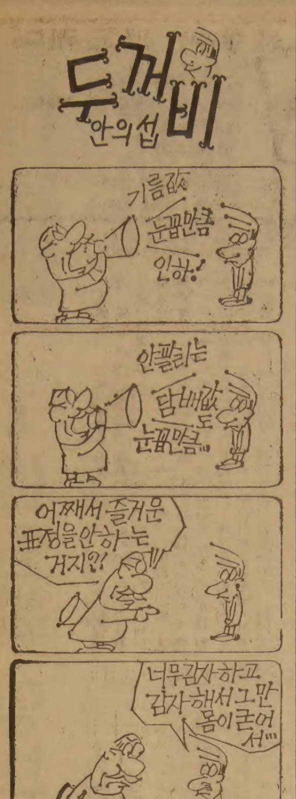
李교수는 이 세상에서 한국인처럼『피부로 일본을 알수있는 민족은 없다』고 말했다. 지리적·역사적인연으로 보아 그것은 사실이다.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잘 알고있다고 믿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대해「꼭 알아야 할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을까.

【文昌宰기자·特輯部】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생선초밥 : $4.50
오 뎅 : $3.00
오뎅백반 : $3.75
가끼우동 : $3.00
곰 탕 : $3.50
설 렁 탕 : $3.95
빈 대 떡 : 3개 $1.50
만 두 : 4개 $1.00
에 그 롤 :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CHRISTIE MANNING BLOOR BATHURST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誤診으로 失明: 39億원 배상

綠內障을 감기로 美병원, 僑胞여인에

◇뉴욕병원으로부터 5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한국계 미국인 수지·金씨。 【뉴욕11日AP電=聯合】

【뉴욕支社11日=崔卜林기자】녹내장환자인데도 美 뉴욕병원측의 감기환자라는 오진으로 失明하게된 한국계 미국인 수지·金씨 (45·한국명 김경숙·뉴욕 맨해턴 요크빌거주)가 병원으로부터 9일 5백50만달러 (한화 약39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뉴욕병원의 실험실화학분석반장으로 근무하고있는 金씨는 이에따라 즉시90만달러 (한화 약6억3천만원)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매년12만달러 (한화 약8천4백20만원)씩을 평생동안 지급받게된다.

金씨는 또 20년이지난후는 일정한 간격으로 1백만달러를 받게된다.

이 손해배상은 최소한 20년동안 지급이 보장되며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 배상액은 법정을 통하지않고 해결된 손해배상으로는 뉴욕州사상 가장큰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뉴욕병원측은 지난주 州최고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 金씨의 변호사 허버트·호로버츠씨를 통해 이같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金씨는 지난76년2월26일 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두통증세가 겹쳐 이병원응급실에 갔으나 담당의사가 단순한 감기라는 말을믿고 귀가하여 수주후 失明하고 말았다.

金씨는 당시 48시간내에 치료를 요하는 급성녹내장을 앓고있었다.

결국 金씨는 76년3월부터 80년까지 12차례의 수술과 6차례의 레이저광선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을 회복하지못했다.

金씨는52년 한 미군대령을 따라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 김명호씨는 공산군에게 피살되었고 어머니 박이분씨와는 전쟁중에 헤어져 얼굴도 모른다는것.

미국에 온뒤 金씨는 남캐롤라이나州의 농촌에서 자랐으며 뒤에 병원검사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뉴욕병원에 취직, 失明하기 전까지 주급 5백달러를 받고 일해왔다.

한편 金씨는 맨해턴의 호로버츠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라고말했다.

출입이 불편해 가끔 한국식당을 찾아가 즐기던 한국음식도 못먹게되어 안타깝다는金씨는『병원측을 원망하지 않는다. 의사도 인간인데 실수가 없겠느냐』고말했다.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3)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구룡山(永川)에 큰불

계속번져 헬機동원 鎭火작업

11일상오11시40분께 경북 清道郡과 永川郡 경계지점인 永川郡阜安面北洞 국유림인 구룡산중턱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산불이나 이날하오 5시현재까지 30여정보를 태우고 계속번지고 있다.

산불이 나자 永川군청직원·경찰·민방위대·주민등 1천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펴고있으나 해발8백m의 높은 산이라 불길을 쉽게 잡지못해 清道郡과 永川郡阜安面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군당국은 이날불은 해발6백50m지점에서 발화, 때마침 세차게 부는 남서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어 헬기를 동원한 진화작업 또는 자연연소가 되지않는한 진화작업이 어려울것으로 보고있다. 【永川=聯】

蔚州서도2件, 3만그루태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11일 하룻동안 경남蔚州지역에서 2건의 산불이나 소나무·잡목등 3만여그루를 태웠다.

11일상오 11시40분께 경남 蔚州郡江東面於勿里 뒷산 장수연묘장에서 인부들이 잡초를 태우다 산불이 나 임야7정보의 5년생소나무와 잡목 2만5천여그루를 태운뒤 출동한 인근주민·예비군·민방위대원등 5백여명에 의해 하오3시께 진화됐다.

또 이날상오11시10분께 蔚州郡温山面德新里 동해필프사택옆산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1천2백여평에있는소나무 5천여그루를 태우고 1시간만에진화됐다. 【蔚山=聯】

그물에 青磁걸려 博物館 감정의뢰

전남新安郡은 11일 고기잡이중 흑산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청자로보이는 자기 1개를 국립광주박물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청자는 지난8일상오11시께 新安郡黑山面 하태도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그리물낚시를하던 어부 최세덕씨 (45·신안군흑산면하태도리)가 그물에 걸려나온것을인양, 郡에신고했었다. 【木浦=聯】

잉꼬법랑·電子대표 3兄弟

40억 不渡내고 잠적

債權團 주장 "납품받은후 덤핑 돈챙겨 어음·수표 百億규모 남발"

우리나라 유수의 가전제품생산업체인 「잉꼬법랑 (琺瑯)·잉꼬전자」 회사대표 3형제가 줄잡아 40억원의부도를내고 잠적,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쇄倒産우려 남품업체 가족등 3만명타격

◇종업원도 3개월賃金 못받아 3형제가 대표로있는 잉꼬법랑·잉꼬전자。 이들이 1백여억원의 부도를내고 달아나는바람에 공장은 가동을중단하고 4백여종업원들은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잉꼬회사로부터 생산주문을 받아 남품해오던 중소기업인 1백50여명이 도산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채권단을 형성,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는데 수사에 나선 경찰은 11일 잉꼬법랑대표 金在義씨 (41·서울江南區新沙洞278의1)를 검거, 사기및 횡령·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金의 동생 在植씨 (39·잉꼬전자공동대표·서울城東區聖水洞2街5의15)와 在云씨 (35·〃) 형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고발한 채권자들은 ▲이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에 달하는 큰기업이며 ▲납품업자가 1백50여명으로 종업원5천여명과 부양가족2만여명등 모두 3만여명의 생계 수단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주장, 이 업체를공동관리운영케해 관련기업들을 살리고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계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있다.

잉꼬회사는 지난 79년11월에도 탈세혐의로 서울北部지청에 입건됐었다.

채권만고발에 따르면 지난74년1월1일 이들 3형제가 설립, 법랑과 전자·보온밥솥·미서등을 생산, 판매해온 이회사는 한때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에 달했으나 2년전부터 과당경쟁과 경기침체등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것.

회사가 도산위기에 직면하자 지난해 5월부터는 납품업자들에게 각종수표와 어음을 남발, 제품을 납품받은후 원가 (1만6백원) 보다 20~30%가 싸게 시장에 덤핑판매하는 형식으로 23억여원의 현금을 챙긴후 지난1월19일 상업은행城東지점과 중소기업은행 華陽洞지점에서 7천만원이부도가나자3형제가 모두 행방을 감추었다는것。

또 납품업자들에게 남발한 수표와 어음액수가 50억원에 달하며 은행부채가 30억원, 사채가 5억원등으로 경찰수사가 계속되면 그규모는 1백억원대를 훨씬 넘을것이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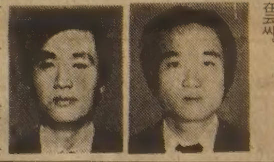
가장 피해가심한업자는 잉꼬법랑과 전자에 알루미늄을 납품해왔던 金振榮씨 (51·半月공단내 창경금속대표) 로 지난해5월부터 수표와 어음만받고 한푼의 현금을받지못해 4억원의피해를 입었다는것。

金씨에의하면 이들 형제들은 『그동안 흑자를냈으니 81년도만 무사히넘기면 국내제일의 법랑·가전제품 메이커가될수있다』며 전기밥솥등을 납품받아 덤핑했다는것.

한편 피해납품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은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하던중 서울城東區聖水洞2街5의15에있는 대지1천평, 건평 1천5백여평의공장건물 (싯가40억원상당) 이 모두 상업은행등 5개시중은행에 압류당해있음을 확인했다。

또 잉꼬전자공동대표인 金在植씨의 싯가 8천만원짜리 집도 부도나기직전 처남명의로 등기이전된것으로보아 이들 형제가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3형제가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바람에 1백50개 납품업체중 50%가 연쇄적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잉꼬법랑·잉꼬전자에 근무하는 4백여명의 종업원들도 지난12월부터 임금을못받아 체임액이 1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수배중인 金在植씨(左)와 在云씨。

銃器수색 전국으로 확대

麗水도난사건 犯人 全南지역 벗어난듯

총덮개 1개발견… 현상금 3천만원으로

한국전력 麗水지점 직장예비군무기고총기도난사건을수사중인 경찰은 11일 도난사건이 지난4일상오부터 8일하오3시 사이에 발생한것으로 추정했던것을 이보다 5일전인 2월27일부터 8일사이에 도난당한것으로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수사본부가 이같이 판단하는것은 사건발생직후 예비군소대장 池長洙씨 (30) 가 최종무기고 점검일자를 4일상오9시였다고 진술했으나 지금까지 수사한결과 최종점검일이 지난2월27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전 麗水지점 직장예비군무기고 총기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0일하오 도난당한 카빈총덮개 1개를 麗水市西校洞12 대우용달회사 정문옆 유류창고안에있는 드럼통에서 발견했다。

덮개가 발견된 대우용달회사는 총기가 분실된 곳에서 8백m정도 떨어진곳으로 평소 사람통행이 한산한곳이다。

경찰은 각정결과 이 덮개가 최근 버려진 것이며 범인들이 카빈총을 분해하다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대우용달소속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운행장소및 화물내용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사본부는 범인들이 범행후 전남도내를 벗어났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한편 영업용택시를 비롯, 용달차등 각종차량운전자들에게 이상한짐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인근지·파출소나 군기관에 즉시신고해줄것을당부했다。

한편 총기도난사건 수사본부는 11일 하오 2천만원의 현상금에 1천만원을 추가, 3천만원으로 올렸다。 【麗水=聯】

교장·교감 理念敎育

문교부는 11일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게될 이번 이념교육은 종전의 새마을연수나 정신교육과정에 따로 실시하는것으로 공산주의 비판교육 이데올로기비판교육과 정치·경제문제등을 다루게 된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교육정책과정, EDPS과정 위탁교육등 11개과정을 설치, 최장6개월에서 최단 2주코스로 금년중 1만2백33명을연수시킬 계획이다。

女中生 투신自殺 學校5층 옥상서

11일상오8시25분께강원春川市樂園洞45 聖修여자중학교 3학년2반 趙정숙양 (15·春川市昭陽路1街5) 이 20m아래로 뛰어내려자살했다。

경찰에따르면 趙양은 홀어머니밑에서 오빠3명과 어려운 생활을해오면서 한살 이를 비관해왔는데 10일하오7시께 가족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 가사를 돕겠다는 제의를 했다가 오빠에게 심한 꾸중을들었다는것。 趙양은 이날 아침다른 학생들보다 일찍등교, 투신자살했는데 학교생활은 근면하고 성실해 모범학생이었다는것。

釜山 定員미달 專門大 登錄率도 저조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돼 진통을 겪었던 釜山시내 9개 남녀전문대 (4개간호전문대 제외) 가 등록마저 저조하자 등록 마감날짜를 연기하는등 정원을 채우기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釜山지방 전문대학들은 당초 지난달 27일 일제히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등록률이 너무 저조해 오는 3월말까지로 1개월을 연장했으나 11일 현재 釜山경상전문대와 釜山여전만 1백% 등록했을뿐 나머지 7개전문대학은 합격자중 2%에서 47%까지 등록을 포기, 미달사태를 가중시켰다。

학교별로는 東萊여전이 가장심해 정원 1천3백34명에 지원자는 7백65명으로 이중 4백6명만 등록,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으며 동주여전은 정원 1천5백18명의 65%인 9백82명, 성지공전은 정원 2천24명에 1천6백8명 (79%), 경남공전은 정원 2천3백명에 2천1백1명 (91%) 이 각각 등록했다。 또한 동의공전은 정원 2천70명에 1천9백1명(92%), 부산공전이 정원 1천5백18명에 1천5백1명 (98%) 이 등록했다。

이같은 전문대학 합격자의 등록포기는 이들이 2개 전문대에 지원, 모두 합격한후 한곳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釜山=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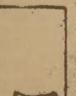
趙治勳名人도전 10段戰2局열어

【東京11日=聯】趙治勳名人本因坊이 오오다께 (大竹英雄) 10단에 도전하는 산께이 (産經) 신문주최 제20기 10단위 결정전 5번승부기 제2국이 11일상오9시부터 가나가와 (神奈川) 현 유가와라 (湯河原) 온천 세끼데이 (石亭) 에서 속개됐다。

洞窟에 미친 사나이

히말라야登攀꿈도 버린 石東一씨

億劫 神秘에 털어버린 俗塵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야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오묘한 경관에 신들려 안방보다 굴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동굴사진작가 石東一씨(30·사진)는 아직 새파란 나이지만 동굴에관한 지식과 정열은 억겁의 동굴나이만큼이나 깊이가 있다。

石씨가 『동굴의 신비와 장엄한 침묵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75년5월 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충북丹陽의 蘆洞굴을 찾으면서부터。

중학 (光州西中) 때부터 산행과 사진에 미쳐있던 그의 눈앞에 펼쳐진 동굴속의 영롱한 조화는 전혀 새로운 감동이었다。

갖가지 기묘한 형태의 종유석과 석순·석주들, 협곡과 폭포와 절벽들을 보는 순간 그는 『범접하기 어려운 자연의 위엄과 황홀감을 함께 느꼈다』고 말한다。

한국산악회의 회원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목표로 갖가지 어려운 훈련을 모두 받았던 그의 모험심은 이후 동굴쪽으로 급선회 해버렸다。

광주朝鮮大를 나와 한햇동안 신문사·방송국에서 일하기도 했으나 동굴에 미치면서부터 그는 직장도 그만둔채 1년이면 5~6개월을 동굴에서 산다。

지금까지 그의 발길이 닿은 자연동굴은 3백여개。

물이차있는 동굴입구에서부터 랜턴불빛에만 의지해 어둠을헤쳐나가야하고 원형을 다치지않기위해 하켄이나 아이젠의 도움없이 자일만으로 폭포와 절벽을 오른다。 30여시간을 물속에서 선채로 지내기도하고 때로는 좁은 암벽사이에 몸이 끼여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끼기도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石씨는 동굴속경관과 동굴동물들의 생태를 1만5천여커트의 사진에 담았다。 이 사진들은 동굴연구에 있어서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저 동굴이좋아 동굴을찾을뿐이라는 石씨는 그러나 이제는 동굴을 보존하기위해 앞으로의 일생을 걸겠다고 힘주어말한다。

동굴과 대화를 나눌줄모르는 몰지각한 발길이 늘어나 수억년을 간직한 신비가 짓밟히는 참상을 참을수없기때문이다。

혼자만이 간직하고싶은 동굴모습을 사진전으로 공개하는 참뜻이 여기있다는 石씨는 빛을 허락하지않는 동굴을 지키려는 최초의 젊은빛일지모른다。 【李秉泰기자】

한국일보 詩壇

나의 詩는

柳謹助

봄이 오고나서
퍼렇게 멍이 든 나의 樹木들
가령 그 언저리 痛症쯤이나 될까
나의 詩는

내가 아무 생각없이
한 시절을 보내고
멋없이 울고 있을 때도 그렇다
나의 詩는

길가에 버려진 한조각 사금파리
아니면
높은 나무 등우리에서 내려다 보는
영험한 새의 몸짓
가령 그 새의 날카로운 발톱쯤이나
될까
나의 詩는—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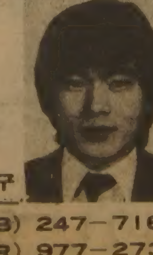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활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生活科学

化学조미료 過用않는한 人体에 無害

美 FDA、워싱턴대학 올네이 교수의 有害論에 증거없다 밝혀

人體에의 有害유무를 놓고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化學조미료가 過用이 아니라는 단서를 전제로 無害하다는 판결이 나왔다。FDA는『지난해말 美워싱턴大學의 올네이 교수가 글루타민酸소다의 人體有害를 주장한것에 대해『현재의 사용수준으로는 害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그간의 조사보고서를 발표、이문제를 일단락 지은것이다。제2의 맛으로까지 군림、우리가정에선 이제 필수적인기호상품이된 이조미료의 성분과 시비의 안팎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 화학조미료 붐이 인 것은 불과 10여년전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 기원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1908년 日本 東京大의 이께다(池田菊苗)박사가 다시마의 단맛(甘味)을 연구하던중 우연히 글루타민酸소다가 바로 다시마단맛의 본체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계기가 됐었다。

그러나 化學조미료로 통칭되는 글루타민酸 소다를 상품화、제품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듬해인 1909년 現 아지노모도의 創業主인 스즈끼(鈴木三郎)家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나머지 일부 제한된 부유층의 식탁에만 오른 기호품에 그쳤다。

당시의 글루타민酸 소다란 소맥분이나 脫脂大豆를 원료로 원초적인 공법으로 추출해낸 것이어서 그 수량은 극히 적을수 밖엔 없었다。

그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1956년 日本協和발효공업이 글루타민酸 소다를 발효액에서 직접 생성、축적되는 발효법을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量產체제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일본에서 출발된 화학조미료는 아시아지역은 물론、美國·南美·유럽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범세계적인 기호식품이 됐다。

이같은 세계적인 보급추세에 따라 그맛도 점차 향상되어갔다。이를테면 쇠고기맛과 송이버섯맛을 내는 두가지 核酸이 추가 배합되는 조미료가 그것인데 예컨대 종래의 味元、味豐에서 한단계 뛰어넘은 복합조미료 味元과 아이미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化學조미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것은 日帝시대 초기로 추정되고 있다。그때이후 소위 아지노모도가 판을 치다가 해방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1956년 동아화성(味元의전신)에 의해 처음 국산화되기에 이르렀다。그후 군소메이커들이 난립、저마다 화학조미료를 내놓았다。이때만해도 모두 小麥단백질인 글루텐을 염산으로 분해하여 얻는 분해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분해법은 공정의 자동화가 어렵고 원료가격이 높다는 결점이 있었다。

56년 일본에서 개발된 발효법이 국내 조미료업계에도입된것은 63년 전후였다。

글루타민酸소다 제조법이 원가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발효법으로 바뀌면서 국내조미료업계는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그후 조미료시장은 味元의 독주시대가 한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1969년 제일제당을 비롯、신한제분、제일물산、한양산업등 4개사가 味豐판매를 설립、공동전선을펴으로써 국내조미료시장은 味元·味豐으로 양분돼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게 되었다。

판매전이 치열한만큼 시장도 남김없이 개척、웬만한시골농가에서도 조미료 봉지를 쉽게 찾을수 있었다。

調味料생산 한국 世界2位
1位는 日本、3位 自由中國

지난해 세계의 화학조미료 총생산량은 33만5천2백80톤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10만6천7백톤에 다음가는 4만6천5백80톤을 차지、제2위의 생산대국으로 꼽히고 있다。

그다음이 4만1천톤의 자유중국、2만7천5백톤의 프랑스、泰國의 2만2천톤순이다。여기서 흥미로운것은 美國의 경우 전혀생산하질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미료를 많이먹는 나라는 일본이나 한국·대만·태국등의 아시아지역과 일부 구라파등지에 국한되고있음을 알수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해마다 조미료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통계다。

지난해 일본경제통신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인은 연평균 1천5백70g의 조미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한국인은 8백g을 소비、일본인이 사용하는 반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뭏든 化學조미료는 그동안 시비도 많았다。순수천연조미료가 아닌、상대적인 의미에서였다。처음 한동안은 메이커측의 과대선전이 경고를 받은적도 있었다。이에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는가하면、심지어는 음식솜씨가 없거나 게으른주부들만의 전용물인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또 화학조미료가 당초에는 밀가루를 분쇄할때 생기는 글루틴을 加水分解하여 만든 자연식품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石油化學工業의 발달에 따라 여기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게 되자 말썽이 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한 보건기관은 아예 乳兒食에 이를 첨가하는 것을 중지시키기까지 했고、일본의 郡司篤孝씨는 그의 저서「味素를 진단한다」에서『石油에 合成된 味素에는 불순물로 35PPM의 헤드라셀酸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석표를 발표、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그뿐만 아니다。한때는 味의 성분인 글루타민酸이「成長발육에 좋다」는 학설과 오히려「뇌신경세포를 파괴、지능을 떨어뜨린다」는 학설이 대립되기도했다。당시 有害를 주장한 사람은 美워싱턴大의 올네이 교수였고、無害를 주장한 이는 FDA의 베이박사였다。

레이박사의 반론인즉、成人이 일반식품을 통해 하루에 섭취하는 글루타민酸성분이통상 15~20g은 되므로 조금 더이를 섭취한다해도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FDA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진통기간 화학조미료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화학조미료대신 비슷한 맛의 멸치수요가 급격히 늘기도 했었다。이제 화학조미료는 이노신酸과 구아닐酸을 일정비율로 섞는 복합조미료시대를 맞으면서 다시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특히 쇠고기나 송이버섯따위高價식품을 마음대로 살수없는 서민들에게 더한것은 값싸고 손쉽게 이를 즐길수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쇠고기나송이버섯이 많이 든 음식에이런 조미료를 많이 넣는것은 우스운 얘기가된다。

◇FDA에 의해 사람몸에 해가없다고 밝혀진 市販조미료。

글루타민酸 더 섭취 괜찮아
無害論 나오자 業界 환호성

지난70년 제네바에서 열린 FAO와 WHO의 합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에서 정한 글루타민酸소다의 허용기준은 체중1kg당 하루0·12g으로 65kg체중인 사람의 경우 적정량은 1일 7·8g이었다。

이들 두 기구가 이처럼 허용기준을 만든것은 물론 지나친 섭취는 좋지않다는 해석을 전제로 해서 였다。그러나 앞서의 郡司篤孝씨나 워싱턴大의 올네이 교수등이 주장한 有害論등은 특히 때산조미료의 경우 쥐에 투여해서 검사해본 결과 성장곡선、혈액소견、내장의 중량과 용적、그리고 병리학적 으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고 따라서 이들 조미료가 人體에는 無害함이 증명됐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化學조미료를 넣지않은 음식은 맛이 없다고 투정할 정도가됐다。그동안 조미료 시장을 놓고 불티나는 경쟁을 벌인「味元」과「味豐」이 쌓아올린 땀의 結晶(?)이라 해도 좋을것이다。

다시 말해 두 조미료 메이커의 치열을 극한 판매전쟁이 결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더 돋구워낸 셈이라는 얘기다。

개업5주년 사은대매출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밭식품은 미국 LA의 DY FOODS사와 제휴하여 각종 한국식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아오니 일차 왕림하여주시기 바라옵니다 특히 국보쌀에 못지않는 가주미와 참기름 국수 고추가루 새우젓 종류등은 저희한밭식품의 자랑이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DY加州米 (일명장미쌀) 50Lb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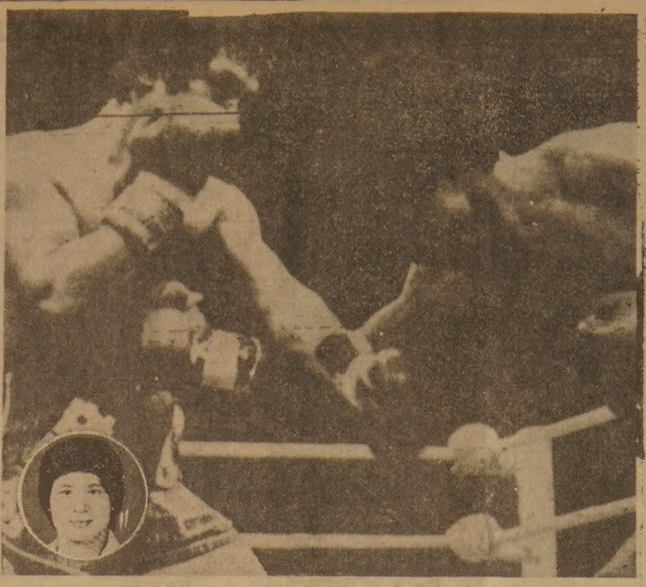
DY참기름		7.95
가도야참기름		8.95
미국산사뽀로이찌반	24개	7.95
DY우동국수	5LB	3.99
DY막국수	5LB	3.99
DY소면	4LB	2.99
DY당면	1LB	1.99
DY엿기름	1봉지	1.99
다누끼 우동	1BOX	19.50
기스메 우동	1BOX	19.50
DY메주가루	1LB	1.99
김치용한국고추가루		2.99
햇김1등품	100장	14.99
새우젓특등품	1LB	1.59
회조개	2LB.BAG	7.99
DY낙지	2LB.BAG	6.99
멍게	1LB.BAG	3.99
물해삼	1LB.BAG	3.99
조기	33lb(1BOX)	42.95
삿뽀로잇찌반 비프		7.95

농장산 다꾸앙 총각무 대량입하 LB당 49¢ 50LB BOX구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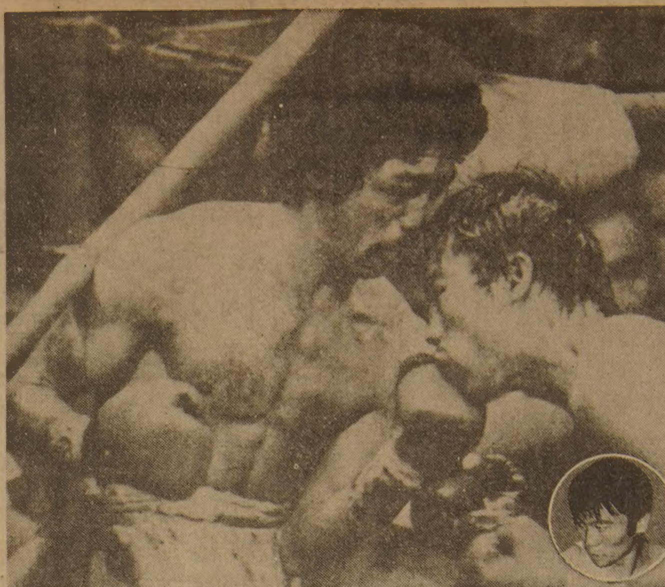
※영업시간 : 일요일은9~8PM영업중 ※주문배달

한 밭 식 품
466 SOUTH SERVICE RD. MISS.
(South of Q.E.W.—Between Hwy10 & Cawthra
274—5401 625—1078 임수철 설동란

金煥珍·金龍鉉의 日遠征 慘敗내막



◇지난해 12월16일 일본 센다이에서 벌어진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인 한국의 김환진은 도전자 일본 도까시끼·가쓰오 (오른쪽) 로부터 심한 충격을 받고 6회에서 링에 자빠지고 있다。도까시끼는 심판 전원일치로 타이틀을 쟁취했다 (사진 원내는 金煥珍)。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일본의 구시겐이 오오사까에서 벌어진 타이틀 매치 15회전경기서 도전자 한국 김용현에게 레프트 어퍼를 턱에 적중시키고 있다。구시겐은 심판전원일치로 11번째 타이틀을 방어했다 (사진 원내는 金龍鉉)。

緊急入手 毒物사건 이것이 眞相이다

제1회

【東京=宋孝彬 특파원】 金煥珍·金龍鉉등 한국 프로복서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원정온 외국복서들에게까지 「藥物注入의 마취」를 하고 있다는 폭로기사가 터져 나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스포츠팬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日本 교오에이 (協榮) 체육관회장 가네히라 (金平正紀) 씨 측의 「毒物마취」 관련 사실을 폭로한 週刊文春誌를 긴급입수、藥物사건에 얽힌 이면을 철저히 분석、수차례에 걸쳐 전재한다。

조작의 원흉은 전 日本 복싱협회장이며 교오에이(協榮)체육관 회장인 가네히라·마사노리였다。그는 구시겐·요오꼬、도까시끼·가쓰오등 두 챔피언을 탄생시킨 복싱계의 신화적인 존재。승부 조작에 사용한것은 특수 약물이다。이것을 극비리에 도전자의 음식물에 섞어 시합을 제대로 치를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구시겐과 도까시끼등 두 챔피언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교활한 모략과 공작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다。協榮체육관의 때묻은 영웅들과 여기에 얽힌 가네히라(金平)회장의 약물투입의 베일을 벗겨 본다。

사또호텔408號室서 藥物실험

처음엔 롯데그린껌에 藥物넣는 실험 여러번하다 失敗

◇金平正紀회장

작년 12월16일 일본 센다이(仙臺) 미야기껜(宮城縣)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던 WBA세계주니어플라이급 타이틀매치 대회장은 새 챔피언의 탄생을 축복하는 6천명의 환성에 들끓고 있었다。

세계타이틀에 첫 도전한 도까시끼·가쓰오가 대전전의 압도적 불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金煥珍으로부터 王座를 빼앗았기 때문이다。金煥珍은 구시겐·요오꼬의 14연승을 저지한 페드로·플로레스를 뉘고 작년 7월 왕좌에 앉은 새챔피언、그러니까 도까시끼는 같은 교오에이(協榮) 체육관소속의 선배 구시겐의 복수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시합이 끝난다음 링위에서는 구시겐과 도까시끼가 서로 껴안는 감동의 신도 벌어졌었다。교오에이체육관의 가네히라(金平)회장도 희색만면이었다。

시라이·요시오(白井義男) 이래 일본이 탄생시킨 역대 세계챔피언은 20명、그가운데 에비하라(海老原博幸)、사이조(西城正三)、구시겐·요오꼬、우에하라(上原康恒) 그리고 도까시끼·가쓰오 이렇게 5명이나 되는 왕자를 길러낸 셈이 되는 것이다。복싱계 일부에서 명 매니저동으로 불리는 까닭이기도하다。

「구시겐2世탄생」이라고 커다란 제목을 내건 스포츠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오끼나와魂이 되살아났다」 불멸의 왕자 구시겐과 같은 피를 받은 후배가 그의 선배가 잃었던 타이틀을 제손으로 되찾은 것이다。21세의 젊음、그리고 파이팅이라는 것은 정말 멋지다。구시겐이 링에 뛰어올라 껴안았다。그만 도까시끼는 울음을 터뜨렸고 구시겐도 체면보지않고 눈물을 흘렸다。

대전전의 예상으로는 이런 광경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없었다。캐리어、펀치력、스태미너의 어느 하나를 비교해도 이길것같지는 않았었다。

그 승산이 없었던 도까시끼는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다。스포츠에는 예상밖의 이변이 흔히 있을수 있다。그렇기에 재미도 있는 것이며 예상밖의 이변은 언제나 감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도까시끼의 왕좌획득에 이르는과정에서 온갖 비밀히 강행된 놀라운 모략공작의 실태를 안다면 그 감동은 순식간에 추잡하게 변질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한국選手가 시합前 減量위해 레먼즙기자

레먼에 주사기使用 약물注入

우리들 특별취재반은 앞으로 수회에 걸쳐서 일본 복싱계—교오에이체육관 가네히라회장 (바로 최근까지 전일본 복싱협회 회장이기도 했다) 에 관한 암흑의 부분을 백일하에 폭로할 작정이다。

× × ×

여기서 잠시 당시의 모습을 되살려 보자。도까시끼가 세계챔피언에의 도전자격을 얻기위한 중요한 시합은 작년 6월2일 도오꾜 고오라꾸엔홀에서 열렸었다。

「세계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라고 내건 한국의 金龍鉉과의 10회전이었다。이때 金龍鉉은 동양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이었으며 동시에 동급 세계3위에 랭크되는 강호였다。

그와 대전하는 도까시끼·가쓰오는 일본랭킹 1위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구시겐의 스파링 파트너에 불과했었다。세계라는 눈에서 본다면 無名의 신인복서였으며 가네히라회장 자신이 저 강자에게 붙이는것은 좀 무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을정도의 무리한 매치메이킹이었다。

물론 대전전의 예상으로는 도까시끼로서는 승리는 바라볼수도 없으며 어디까지 싸울수 있을까라는것이었다。

그러나 가네히라 회장으로서는 그 싯점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까시끼를 金龍鉉과 싸우게 하여 이긴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도까시끼의 부상은 구시겐의 은퇴문제와 미묘하게 뒤엉킨 관계에 있었다。

작년 3월8일 자기의 고향인 오끼나와에서 플로레스에게 패배、타이틀을 잃은 전챔피언 구시겐 요오꼬는 은퇴를 결심하고 있었다。사실은 그 훨씬 이전인 재작년 6월에 바르가쓰와의 대전때부터 구시겐은 싸울 의욕을 잃고 있었다。—그 이유는 체력적 기술적인 쇠퇴 그리고 돈의 문제였다。

자기가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었던가를 알기 시작한 구시겐은 이 이상 남을 위하여 얻어 맞는것이 어리석어졌다고 친지에게 말했었다。

『가네히라 회장은 20회 방어전을 하라고 하지만 웃기는 얘기지。그렇게하면 나는 죽게돼』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끼나와에서 14차 방어전에 실패한 뒤로도、아니 그런까닭으로 모처럼의 황금의 알을 놓치기 싫었던 가네히라회장의 재기를 강요하는 설득은 집요했었다。그래서 다툰결과 구시겐은 작년 8월7일 설득을 뿌리치는 형식으로 정식은퇴를 발표한것인데、그간 가네히라회장은 필사적으로 다음선수를 모색하고 있었던것이다。

그자의 가네히라 회장의 움직임을 복싱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복싱계의 관례로서 챔피언측은 타이틀을 잃어도 다음 두 시합분의 흥행권을 가질수 있다。다시말해 도전자와 시합의 개최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것이지。이것을 옵션이라고 부르고있는데 가네히라회장으로서는 이 옵션을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틀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야。물론 지금 가장 바람직했던것은 구시겐의 컴백이었어지。재기전이 된다면 흥행권도 비싸게 팔수있고 (마지막에 오끼나와 대전의 개런티는 한화 1억5천만원) 텔레비젼 개런티도 고액이다。(오끼나와의 경우 한화약 3억원)

그러나 구시겐은 아무리 설득해도 또다시 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그래서 다음 후보자로 세웠던 것이 같은 계열의 교오에이 가와이(協榮河合)소속의 미나미·마사하루(일본 챔피언)이었어。』

가네히라회장 자신에게 세계에 도전케하는 후보자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교섭을 너무 서둘렀던 관계로 이 매치메이킹은 실패에 끝나고 말았다。그래서 결국 자기선수를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교오에이에 있었던 것은 다다·히로유끼란 선수와 도까시끼·가쓰오의 둘뿐이었는데 이걸로는 문제도안돼。한쪽인 도까시끼는 구시겐의 스파링 파트너였으나 다다·히로유끼는 데뷔이래 9연승이었고 이싯점에서는 「구시겐2世」라는 평도 듣고있었어。그런데 다다는 구시겐이 플로레스에 패배한직후 아까말한 미나미에게 도전해서 졌고 4월초에는 한국에 원정해서 金龍鉉에게 KO당하고 말았지。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노마크였던 도까시끼하나뿐인 것이야。』

도까시끼는 후보의 후보선수였던 것이나 가네히라회장은 그에게 모든 운명을 거는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타이틀의 탈환을 노리기 위해서는 우선 金龍鉉을 이기고 온갖수를 써서 세계랭킹에 집어넣어、도전자격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상의 것이 무모한 매치메이킹의 배경인 것이다。

실로 가네히라회장으로서는 세계타이틀매치에도 필적하는 중요한 시합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맞이한 6월2일의 金龍鉉과의 대전이었는데 도까시끼는 이 시합에서도 압도적 불리의 사전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다。이로써 세계에의 도전자로서 단숨에 뛰어나오게된 것이다。

「도까시끼、세계3위 金龍鉉으로부터 대수훈」이라고 제목을 붙인 복싱전문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金龍鉉은 23세、지난 80년 1월 구시겐·요오꼬에 도전해서 판정으로 지고있다。동양주니어플라이급 왕좌에 오르고 나서도 두번이나 타이틀을 방어하고 있는 실력도 있다。캐리어로 보아도 金이 훨씬 나은데 신예 도까시끼를 상대로 어떤 시합을 보일까가 하이라이트였다。그러나 길고 짧은것은 한판승부를 해봐야만 하는것인가…。』

이 시합을 본 사람들은『웃기는 시합이었다』고 한결같이 말했다。공이 울리자 도까시끼는 혼신의 힘을다해 레프트 잽·훅을 마구 넣는것이었으나 대전자인 金龍鉉은 마치 할 뜻이 없는것 같았다。펀치의 스피드도 없었고、다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9라운드에는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얼굴에、때려넣어 그로기 다운 직전까지 몰고갔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결국 아주 근소한점수차는 金龍鉉의 실수에의한 패전이란평을듣고 만 것이다。시합이끝나고 대기실에서는 바야흐로 대조적인광경이 벌어졌다。

이긴 교오에이 사이드에서는 祝勝을위해 달려온 구시겐이 도까시끼의 오른손을 높이추켜든 곁에서 기자단에게 둘러싸인 가네히라회장이『모처럼의 황금의 알이니까 소중하게 키워나가겠다。플로레스對 金煥珍전의 승자와 연내에라도 대결시키고싶다』고세계타이틀도전의 구상을 펼쳤다。

한편 패배한 한국측에서는 매니저 崔承哲씨가『이 시합은이상해、문제로삼아야겠어。기자단에 공표하겠다』라고미친듯이 큰소리를 지르며 외

有毒오린지 6個가 프런트로부터 金龍鉉선수·任員에

쳐대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시합에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인가。기자단에게 공표하겠다고까지 한국측을 격분시킨 뒷 공작이란 무엇이었던 것인가。

다음은 프로복싱계 교오에이체육관 관계자 가네히라씨 주변의 철저한 취재및 관계자 증언에 의하여 드러난 가네히라회장 자신에 의한 괴상망측한 약물투입사건의 실태이다。

우선 金龍鉉선수 일행이 일본에 온날 5월30일의 행동을 재현해 보자。金선수가 東京에 온것은 시합 3일전이었다。일행은 매니저 崔承哲씨와 트레이너 鄭英華씨였다。

세사람은 교오에이측이 마련한 고오라꾸엔 근처의 비즈니스호텔 사또에 숙박했다。

4층 제일 끝방인 405호실에 金선수、406호실에 鄭트레이너、407호실에 崔매니저 그리고 408호실에 교오에이가 잡는다는 방배치였다。

그런데 이 408호 실이야말로 가네히라진용의 경천동지의 모략공작의 실행기지였던 것이다。그방에 모인사람들은 가네히라회장、그의조카인 맥·가네히라 (매니저) 그리고 교오에이 간부의 면면이었다。

최초에 준비되었던것은 추잉 껌이었다。그것도 조그맣고 두툼한 멘·틴이란 껌이었는데 그들은 염화비닐로 만든 앰플에 들어간 하얀 분말을 물에 녹이고 거기에 껌을담갔다。약물을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 진흙처럼 갠 다음 원형대로 네모로 만들고、포장지에 다시 싸는 공작까지를했다。

이 과정에서 교오에이 관계자는『평소부터 연구를 해두었어야 할텐데 사실은 껌에 관해서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사무실의 회장실에서 틈이 있으면 껌에관한 연구를 하기는 했었던 모양이다。체육관 관계자로 그런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有毒레먼 먹으면 便안나와 減量안되게"

레먼도 滿足치않아 오린지使用

『처음엔 롯데 그린껌으로 연구하고 있었지요。유리로만든 네모난 탁상 담배상자그속에 약물을 넣고 껌을 담그는 것이에요。처음엔 하루정도 그렇게 내버려두었는데 좀처럼 약물을 흡수하지 않았던 모양이죠。그래서 손가락으로 비비고는 또 펀펀하게 펴서 은박지에 다시포장하곤 했었지요。그래도 원상대로 하는것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정말 괴상한 풍경이었다。적어도 전일본 복싱협회의회장(당시)이란자가 대낮에그와같은 일을 저지르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그 사실을 취재반은 체육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다시 호텔 사또오의 408호실、가네히라방으로 되돌아 가보자。책상위에는 약물에 담긴 껌이 그대로 놓여있다。부피가 두툼하여 롯데의 그린껌보다는 잔난질하기 쉬웠을지 모르나 한동안의 시험끝에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다。

가네히라회장은『상관없어。이런것 은박지를 열어 봤자 입에 툭 털어넣으면 알리 없잖아』하고 대담한말을 했는데 어느모로 보더라도 공작을 편 흔적은 뚜렷했다。

다음에 준비된 것은 레먼이었다。이것은 패거리중의 하나가 자동차로 서둘러 한밤중에도 열고있는 슈퍼마킷에서 사온것이다。

교오에이 체육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녀석은 이리저리 연구해 봤읍니다만 결국 껌으로는 안되겠다는 결론이 났지요。그래서 한국선수가 저녁밥을 어떻게 먹나 관찰했읍니다。그랬더니 시합전에는 감량하기 위해선지 별로 먹지않는 것이에요。그대신 레먼을 주문해서 짜마시고 있었어요。그것을 보고 녀석은 레먼같으면 먹을테니까하고 서둘러 준비하게된것이지요。』

레먼에는 소형주사기를 사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택했다。

실험해보면 잘 알겠지만 아무리 주사기를 사용해서 넣으려해도 과일에 액체를 주입한다는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내부는 포화상태이니까 바늘을 빼면 액체가 솟아나오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몇번이나 자리를 바꾸어 바늘을 찌르는 동안에 밖으로 보아서는 눈치채이지 않을 만큼 약물을 집어넣은 「유독 레먼」이 생겨나게된 것이다。약물의 효능에 관해서 가네히라회장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설사를 하라는 토사제가 아니야。오히려 그반대로 변이 안나오게 되지。그러니까 선수는 무게가 안 주는거야。』

우리는 이 약물이 무엇인지 거의 확증을 잡고있다。그뒤 드러난 증상과 맞추어보면 토사제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수께끼라고만 해두자。이 약물에 관해서는 달리 기회를 잡아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하여간 다섯개의 유독레먼은 그날밤에 식당의 웨이터에게 맡겨졌다。그러나 이유독레먼은 결국 金선수 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양심의 가책을 느낀 간부중의 하나가 회장이 호텔을 떠난 다음 웨이터로부터 회수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네히라회장 자신은 다음날아침 『어이、그 레먼 먹었어』하고 물었더니、『네、먹고 있던데요』라고 부하가 대답했으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레먼은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가네히라회장은 집념의 사나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레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 다음날 (즉 시합의 전날) 에는 제2탄으로 따로 오린지를 사용한 모략공작을 시도했다。

오린지가 선택된 이유는 매번 똑같은 과일이라면 부자연스럽고 레먼이라면 일단 웨이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열서너개의 오린지는 가네히라의 부하들이 신주꾸라는 곳의 여기저기서 사들인 것이다。

그러나 오린지 가지고는 악전고투가 거듭되었다。오린지는 레먼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빼면 찍하고 분출도가 강했고 여기 저기 찔러서 약물을 집어 넣으면 마치 분수처럼 사방팔방으로 분출한다。

부하들이 제대로 처치 못하는데 초조함을 느낀 가네히라회장은『너희들 정말 서투르군。이렇게 하는거야』하고 솔선수범하기도 했으나 약물이 너무 진해서 주사바늘이 막히기도 하여 이번에는 새 주사기를 체육관의 트레이너를 시켜 사오기도 했다。이 주사기는 체육관 근처의 미쓰즈약국에서 산 것이다。몇날 이 트레이너는 친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휴、그때는 혼났어。왜 주사기를 만 호텔에 「해」라지 않아。그때는 정말 못 견디겠던데。』

이렇게 고생끝에 약물주입에 성공한 오린지가 모두 6개。갈색 종이 봉지에 다시 넣었다。이 봉지는 崔承哲매니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외출중이었기 때문에 프런트에 맡겼고 저녁에 호텔에 돌아온 일행은 분명히 그 봉지를 수령했다。

"2個남은 오린지檢査시키겠다"

金平회장 崔매니저 만나 1時間 대결

걱정된 金平회장은 證據湮滅위해 오린지 바꿔치기 作戰

金은 對도까시끼戰서 憤敗

崔承哲매니저 "시합異常 問題삼겠다"

오린지 먹고 모두 腹痛에 설사"暴露

앞에 쓴것처럼 金龍鉉—도까시끼戰이 끝난다음 대기실에서 崔承哲매니저가 문제삼겠다고 큰소리 지른 것은 분명히 오린지의 件이다。

호텔로비에 되돌아와서도 崔매니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오린지를 맡겼던 교오에이 간부들에게 그 화풀이를 어렁게 터뜨렸다。

『받은 오린지를 먹었는데 그건 이상했어。』

『나도 먹었고 나머지 두사람도 먹었지。모두 배가 아파진거야。어제부터 몇번이나 설사를 했으니 이건 수상해。』

『지금 2개 남아있으니까 그걸 검사하겠어。東京에서는 신용할수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는 길에 오오사까에 들러 철저히 조사할테야。』

그리고 뒤에 달려온 가네히라회장에게『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함께 방에 와주세요』라고 그를 끌고 올라갔다。

崔매니저와 가네히라회장의 대결은 약1시간 끌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나중에 소개하는 崔씨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하기로 하고 하여간 한시간후 로비에 내려온 崔承哲매니저의 분노는 가라앉아 있는 듯이 보였다。

가네히라회장을 포함한 교오에이측의 수명과 기분좋게 맥주를 들었기에 이젠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는가 했더니 다음날 사태는 새롭게 전개된다。

다음날 아침 東京의 교오에이 엔터프라이즈 사무소에서 가네히라회장은『자식들 정말 검사할까』라고 중얼거리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오린지 바꿔치기를 명령하는 것이었다。

<다음號에 계속>

金平회장 事實上시인

會長職사임·프러모터返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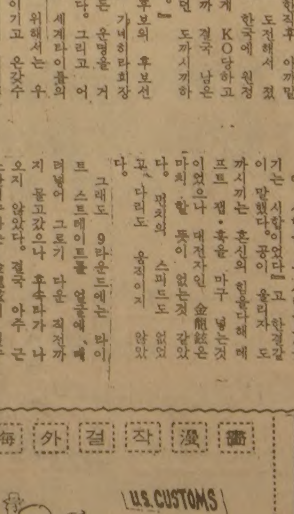
韓國의 권투선수들을 日本에 불러들여 독물이든 과일을 먹여 日本 선수들에게 챔피언을 따게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日本 교오에이(協榮) 권투클럽의 가네히라·마사끼(金平正紀) 회장이 5일 회장직을 사임하고 프러모터및 오너라이선스를 日복싱위원회에 제출、이 날짜로 수리됐다。

구시껜(具志堅用高)등 5명의 챔피언을 길러낸 교오에이클럽의 가네히라회장은 지난해 6월 日고오라꾸엔(後樂園)에서 열린 金龍鉉(당시 세계 주니어플라이급3위)과 도까시끼·가쓰오(渡嘉敷勝男)와의 대전에서 金선수에게 독물이든 오린지를 먹여 도까시끼가 챔피언도전권을 한후 이어 같은해 金煥珍과의 챔피언전에서도 金에게 같은 방법으로 독물을 먹여 도까시끼가 챔피언이 되게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네히라회장은 표제출이유로 복싱계에 물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말해 韓國선수들에게 독물을 먹여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와관련 日本신문들은 가네히라회장의 사표사건을 사회면에 일제히 대서특필했으며 日권투협회도 진상규명에 나서는등 사태를 중시하고 있다。

海 外 걸 작 漫 畵



『아함, 이속엔 뭐가 들었지요?』
(세관 검사대)
"Aha! And what have we here?"

주간女性

차라리 죽으라구

전차에 각자 남편과 함께 타고있던 두 부인이 창을 여느냐 마느냐로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이윽고 모자를 쓴 부인이 말했다。

『이 창문을 열지않으면 난 질식해서 죽는단 말예요!』

그러자 상대편 부인도 지지않고 이렇게 버티었다。

『아네요、창을 열어서는 안돼요。창문을 열면 나는 3분도 채안돼서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죽게된단 말예요!』

두 부인은 각자 남편에게 가세(加勢)해 달라고했다。남편들은 한참을 … 가 의논하더니만 돌아와서 이렇게 선언(宣言)하는 것이었다。

『먼저 3분간만 창문을 열었다가 그후엔 내내 창을 닫아버리기로 했어』

—얘기의 샘—

한국의 妓生

別離의 儀式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監司는 租稅의 수입・지출권한 뿐만 아니라 司法權도 행사하는 絶對權者로서, 在任하는 동안에는 감영의 모든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물론 기생도 포함된다。그러나 기생과의 사랑은 無限이 아니라 有限이었다。수령이 轉任 혹은 파직되어 떠나거나 나그네가 발길을 돌릴 때는 사랑을 단절하고 이별해야 했다。직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기생은 官物이므로 王命으로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한 영원히／私有化할 수 없었다。만일 수령이 官妓와 떨어지기가 싫어 辭職하고 野人으로 머물더라도 기생과 사랑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校理石

情人과 別離하는 사랑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른다。조선의 선비나 관리는 울지 않는 법이고, 특히 사람 때문에 아랫 사람 앞에서 눈물을 내보이지 않아야 했다。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감사가 기생과 깊은 사랑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더니,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뭇 기생과 관노들이 환송하는 자리에서 감사는 이별의 아픔을 못이겨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한 관노가 빙그레 웃으면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사또께서 어인 연고로 우십니까。」

감사는 자신의 겸연쩍은 처지를 깨닫고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길가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며,

「이 무덤이 나의 조상의 무덤이라 는 얘기를 지날 때면 눈물이 솟아진다네。」

「사또께서 잘못 아셨습니다。이는 소인과 同官인 都房子의 무덤인 걸요。」

관노의 말에 창피를 느낀 감사는 눈물을 거두고 황망히 떠났다。<[illegible]>

忠州 어느 곳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새긴 바위를 校理石이라 부르는데, 교리석으로 命名하게 된 내력을 보면 역시 기생과의 조정을 잊지 못한 사내들 때문이었다。

安・權 두 선비가 忠州에 갔다가 기생과 정이 들었다。安은 竹間梅를 사랑하고, 權은 月下梅를 사랑하였는데, 수십 일만에 달천가에서 이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별하기가 서러워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곁에 있던 뭇선비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 최근까지 그들이 앉아 울던 바위를 校理石이라 부른다는 것이다。<[illegible]>

●情表・約束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별의 儀式을 가졌다。붙안고 울다가 소매를 놓으며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일 헤어져야 한다면 오늘 저녁 당사자 두 사람이 상을 차려 마주 앉는다。술을 마시고 음식을 들면서 그간 쌓은 情을 재다짐한다。그리고는 마지막 정염을 태운다。

이러한 의식이 지금까지 관습으로 남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남녀가 禁斷의 線을 헤어지는 날 밤에 넘어 어처구니없게도 눈물의 씨앗을 뱃속에 간직하는 여자들이 많다。

그렇지만 서로 밉다, 티격태격하던 부부가 도장을 찍고 송별의 마지막 밤을 보내다가 살을 댄 까닭에, 아니 快味의 포로가 되어 和合하는 경우도 있다。전근 가는 동료를, 아니 가족이라도 송별회식을 반드시 갖는 이유가 이별의식이 있어서다。

그런데 이런 이별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그랬었던 것은 아니다。중국의 則天武后는 精力과 性技巧가 뛰어난 사나이를 불러 들여 밤마다 땀을 쏟았었는데, 자주 병을 앓자 죽음의 문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愛人인 설오조를 도피시켰다。헤어지려는 전날 밤 산해진미를 차려 놓고 마주 앉아 실컷 울었었다。

이별의 의식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지막 情炎을 불사르고 情表를 주고 받음으로써 끝난다。

기생과의 이별은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으므로 많은 눈물을 쏟았고 반드시 사랑의 情表를 주었다。이빨을 뽑아 주는가 하면, 머리를 잘라 주기도 하고, 치마폭에 시를 쓰기도 하였다。

尹鼓善은 龍灣에 있을 때 사랑하던 기생과 헤어지면서 <눈은 實院보다 높으니 아름다운 인물 없고, 창자는 용만에서 끊어지니 자별있는 때문일세 「眼高實院無佳麗 腸斷龍灣有別離」>라는 시를 지어주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芝峯類說>

맺은情 못잊어 서로안고 울다가 마지막 情炎태우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遺體「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더할 나위 없는 不孝인데도—。

高敬命은 기생의 치마폭에다가 사랑의 흔적을 남겼다。

젊었을 때 풍채가 좋고 재주가 뛰어났던, 고경명은 海西에서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기생은 이미 수령의 사랑을 입고 있었다。기생과 이별하면서 치마폭에 이렇게 시를 적었다。

<강 가게 말 세우고 헤어지기 정어려워／부질없이 버들 맨 윗가지에만 선화／佳人은 인연 薄하다 하여 새로운 교태짓고／탕자는 정 깊이 들어 다서 만날 날 묻는구나／桃李花 떨어지는 寒食철이요／자고새 날아가는 석양 따라／봄 자란 남쪽 개가 봄 물결 넓은 데서／마름꽃 따꼬아졌은 그리는 이 있어서라。>

고경명이 떠난뒤 수령이 기생의 치마폭에서 시를 발견하고 고경명의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해실을 넌지시 나무랐더니, 아버지가 웃으며『제아비를 닮아서 그렇단』고 일소에 붙였다。<任琥・玄湖瑣談>(상대가 기생이 아니라면 치마폭에 시를 쓸 까닭이 없다。다시는 보기 어려운 옛 風流라 할까?)

이같이 치마폭에 시를 쓰거나 머리카락을 잘라 주는 일은 남자 쪽에서 볼때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서약인 동시에 不孝罪를 범하면서까지 사랑을 책임지겠다는 盟約인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깊은 사랑의 표지가 있었다。이빨이다。머리카락이야 다시 자라면 그만이지만 이빨은 다시 나지도 않고, 이빨을 뺀다는 것이 영원히 지울수 없는 遺體切斷이고, 이빨을 뽑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런 아픔이 없었건만 남자들은 사랑을 잊지 않으려 서슴없이 이빨도 뽑았었다。

洪萬宗의 <蓂葉志諧>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

崔선비가 함흥 通判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갔다。꽃과 나비는 쉽사리 어울려진다던가。최선비는 곧 그 곳 기생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私有化 될수 없는 官物 自歎… 뜨겁게 사랑하고 諦念

이 生理모르는 뭇사내 이빨까지 빼어주며 亡身당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서울로 轉任되어 기생과 헤어지게 되었다。

기생이 선비의 손목을 잡는다。

『이번에 하직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원컨대 도련님의 신변에서 가장 귀중한것 하나를 선사하시어 서로 잊지 못할 징표로 삼게 하소서』

하면서 흐느껴 운다。선비가 이빨 하나를 빼어 주고 길을 떠났다。얼마쯤 오다가 기생 생각이 사무쳐 눈물을 흘렸다。그때 한 청년이 선비가 우는 곳에 이르더니 그 역시 눈물을 뿌리며 흐쩍이지 않는가。또 다른 청년이 이르더니 그도 운다。선비가 까닭을 물었다。그랬더니,

『저는 서울 재상의 종입니다。제가 함흥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는 통판의 아들과 연애하면서도 옛 정을 잊지 못해 가끔 몰래 만났습니다만 지금 감사의 아들이 그 기생을 사랑하여 감금하고 내보내지 않으므로 그를 만날 길이 없어 단념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청년도 우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사연이 비슷하다。

최선비가 놀라 기생의 이름을 물었다。자기가 사랑하던 기생과 이름이 같다。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누르고 종을 재촉하여 기생집으로 보냈다。자신이 빼준 이빨을 찾아오라 하였다。

기생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바보 자식아, 배정머리 소 잡지 말라 하고, 기생에게서 證法을 찾다니!』

하며 빼 자루를 뜨락으로 내던진다。

『네 상전의 이빨을 내가 어찌 알아。네가 찾아가려무나。』

종이 돌아와 기생의 말을 전하자 최선비는 더욱 부아가 치밀어 눈물이 말끔히 말랐다。

최선비와 청년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기생의 입장에서는 이빨이 많을수록 자랑거리였다。이빨이 많으면 그만큼 애인이 많았다는 증거로 인기가 높고 매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생은 이빨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다。그리고 이야기속의 함흥 기생과 달리 실제로는 이별의 주인 이름을 적어 보관한다。상대가 명사일수록 그것 역시 자랑거리이고, 화려한 이력의 증빙 물건이므로。

이별의 의식에서 사랑의 정표를 주는 것은 남자 측만이 아니라 여자도 주었다。여자는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주기도 하고 비녀나 가락지, 거울조각을 주었다。이밖에 또 있었다。

申翊聖(1588～1644・文忠公)이 호남에 머물를 때 용모와 재주가 뛰어난 기생을 만나 깊은정을 쏟았었다。이별하는 순간에 기생더러『무엇을 내게 주어 그대를 잊지 않도록 하겠는가』하자, 기생이 차고있던 足蓋를 풀어 바쳤다。얼마 후 기생이 편지를 보내왔는데「한쌍의 족대를 차고 가신 당신이 상을 들 때마다 생각납니다」는 귀절이 있었다。

다음해에 다시 남주에 체찰사로 가보니 기생이 이웃 고을 수령의 사랑을받고 있었다。그 수령은 申翊聖의 친구였다。이를 안 申翊聖이 기생에게 전처럼 대하고 웃고 즐겼지만 다시는 가까이 하지않았다。

그리고 끝내 수령에게 내색 하지 않고 질투 하지도 않았다。그러므로 사람들이 申翊聖의 도량은 칭송하였다。<靑坡劇談>

申翊聖은 기생의 俗性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였던 사람이다。주어진 여건만큼 사랑을 나누고, 이별의 의식을 멋있게 거행했으며 또 멋지게 사랑을 관철시키고 체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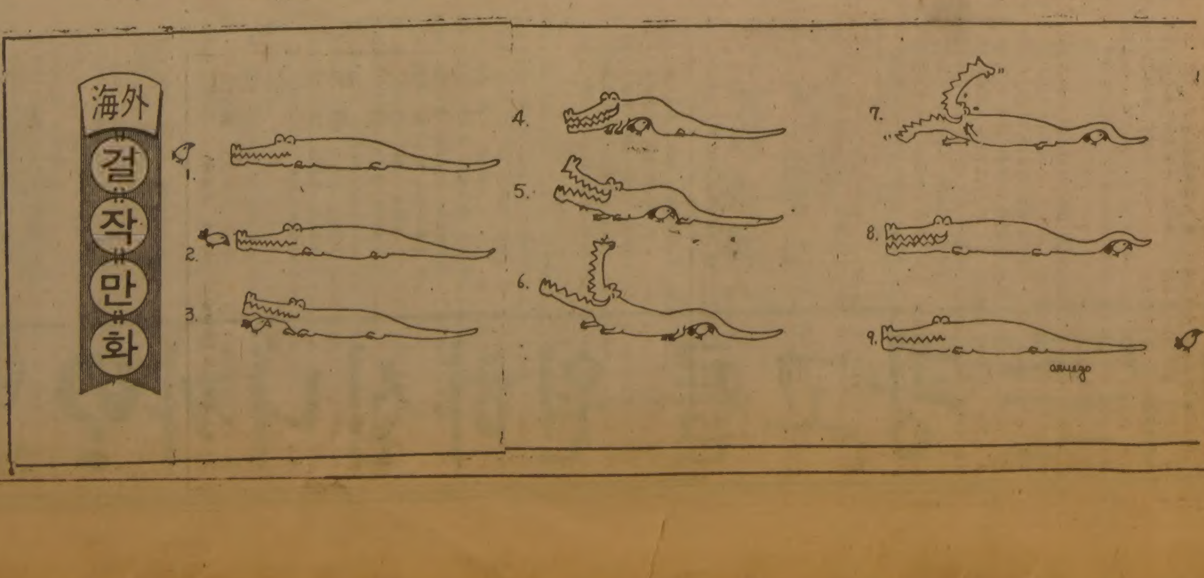
그러나 그런 기생을 위해 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까 궁리하였다。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야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계속>

본社특약
블론디
딘·영作

① —띵 동—
② "대그우드・범스테드씨 앞으로 오는 등기편지를 갖고 왔는데요"
③ "당신이 대그우드・범스테드요?"
④ "물론 내가 대그우드・범스테드요／ 내가 대그우드・범스테드란 걸 당신도 알잖아／"
⑤ "제기랄／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나한테 오는 우편물을 배달해 왔잖소／"
⑥ "나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수도 없이 당신과 부딪쳤구 말야／"
⑦ "미안하지만 편지를 전할수 없소… 우편제도상 수취인 확인이 필요 하단 말이요"
⑧
⑨ "그 편지 내놔"
⑩ "들어 본 가장 웃기는 소리로군／"
⑪ —쾅—
⑫ "저 친구 도대체 유머 감각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단말야"

◇"이양반이 정말"

海外 걸작만화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SAME HERE.

모처럼 미국인 친구와 함께 교포 한분이 미국인 식당엘 갔다. 곧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고 같이간 친구가 주문을 먼저 마치자 이번에는 그 웨이트리스가 교포에게 다가와서 무어라고 한참 음식종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도저히 무슨 음식인지 알길이 없었다.

귀찮고도 급한김에 같은걸로 달라고 same same 했더니 문제없이 잘 통하더라고 본인의 영어실력을 과시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간단히 Same here.라고 하면된다. 이때의 뜻은 「같은 것으로 주시요」라는말이며 그분이 말한 same same 이란 I'll have the same. 이라고 했어야만 올바른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같이 Same here.란 다른사람과 똑같은것을 주문할때 사용하는 말이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때 무난한 방법으로는 같이간 친구나 아니면 웨이트리스에게 따로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는가?」의 뜻으로 What do you suggest? 혹은 What do you recommend? 와 같이 말하거나 「이 식당에서 잘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라고 할때는 What is your specialty? 라고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줄 것이다.

A : Are you ready to order?
B : What's the special of the day?
A : T-Bone steak, with soup or salad.
B : That sounds good. Make it medium, please, and I,ll have the salad with thousand island dressing.
A : Thank you.
(The waitress speaks to another man that is with B)
And you' sir?
C : Same here.
A : 주문하시겠읍니까?
B : 오늘 특별요리가 무엇이죠?
A : 수프나 샐러드가 함께 나오는 티본스테이크입니다.
B : 좋습니다. 중간쯤 익힌것으로 해주시죠. 샐러드는 다우슨 아일랜드를 넣어서 해주십시요.
A : 감사합니다.
(B와 함께 온 다른남자에게 웨이트리스가 말한다.)
손님은 무슨음식으로 하시겠읍니까?
C : 나도 같은것으로 하겠읍니다.
※Special of the day: 오늘의 특별요리.
thousand island dressing: 소스의 일종
【발음】 Salad : 【섈럳】 이라고 발음할것. 【사라다】 라고 하면 미국식당에서 알아듣질 못한다.

TAKE YOUR TIME.

모임에 시간이 늦어 과속으로 운전하는 미국인 친구에게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싶었는데 생각이 안나 slowly, slowly만 연발했다. 이런때는 무어라고 말해야 될까.

Take your time. 이라고한다. 예컨대 교수가 강의시간에 헐레벌떡 늦게 도착하여 서두르자 「천천히 여유를 가지세요」라고 한다든지 가게로 손님이 찾아왔을시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니까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아니오. 고맙습니다. 구경만 하는 겁니다」라고 하였다 하자. 이때 눈치가있는 주인이면 「서두르지 말고 마음놓고 구경하다」는 뜻으로 Take your time. 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이와같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다」는 말의 적절한표현은 Take your time. 이다.

이때의 발음은 「테이크 유어 타임」이라고 떼어서 발음하지말고 「테이큐어 타임」 과같이 발음해야 할것이다.

A:May I help you?
B: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A:Take your time.
(a few minutes later)
B:May I see this sweater?
A:Certainly.
B:Do you have any other styles?
A:도와 드릴까요?
B:아니오, 고맙습니다. 구경만하는겁니다.
A:마음놓고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수분후)
B:이 쉐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A:물론이지요.
B:다른 스타일이 또 있나요?
발음:this sweater:this의 s와 sweater의 첫음인 s가 겹쳐있다. 이때는 하나만발음한다. 「디스웨터」.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3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6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머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 카세트, 비디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⑥⑤

지난줄거리

새벽바람에 어머니는 식구들을 깨워 총찬의 졸업식장에 가자고 조른다. 졸업식장은 총찬의 계획대로 엉터리로 알게 진행된다. 총장상을 받은 것처럼 대형트로피와 상장과 상패까지 가짜로 만들어 들고 이백여명이 학교안을 휩쓸고 다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만든다. 어머니는 계속 한 서린 울음만 터뜨린다. 다혜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싶어 했지만 다혜는 도망가 버린다.

『땅속에다 길내갔고, 기차 댕기면 위험하지 않냐?』

어머니는 길바닥마다 파헤치고 있는 것이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자식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녀.』

『누가 무너지게 만드나요?』

『못믿는겨. 믿을 게 따로 있지. 아예 그런 거 할 생각 말고 다리 아프더라도 걸어댕겨라. 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럴께요.』

나는 편하게 대답했다. 말대꾸를 잘못하게 되면 구차한 변명거리밖에 안 되었다. 어머니 말이 전혀 거짓말은 아닌거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다른 나라 지하철은 지하 2백m까지 파들어 간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 거리의 지하철 깊이는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깊이였다.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급했던 사람들은 기억도 끔찍하겠지만, 지하철 속에 화장실이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놓고 머리 실례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질서니 비신사니 해가며 공박할 것이다. 천하없는 신사고 요조숙녀라도 급하면 어쩌란 말인가? 공중도덕도 지키게 해놓고 지켜주기를 바라는게 상식일 것 같았다.

지하철 설계한 사람들은 오줌 똥 안싸며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전나게 훌륭한 사람들인 모양이었다.

원래 성인군자와 위인과 유명한 사람들은 오줌 똥 안싸고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위인전이나 자서전 어느 구석에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법이었다.

하긴 지하철 뿐이 아니었다. 애써 도로 확장하고 아스팔트 깔아놓은 뒤에 며칠 안가서 다시 파헤치고는 무슨 선을 묻는다, 무슨 관을 묻는다고 난도질을 해놓는 판에 지하철 속에 화장실 안만드는 것 쯤이야 그네들 상식이겠지. 그게 국민들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내서 돈 장난질이나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건 아닐텐데…. 저러다가 지하철을 증설할 때 어쩌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내가 와서 한번 지하철 공사 해봐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치면 당장 뛰어가서 화장실부터 근사하게 지어놓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아랫도리 붙잡고, 인상 쓰는 사람들한테 이 답에 한표 부탁해서 진짜로 그 자리 버티고 앉아볼 생각이다. 지하철에다가 오줌 똥 싸는 사람은 판사 앞에 가서도 할 말이 많은 것이다.

비닐봉지 들고 다니며 볼상사납게 해결할 순 없잖소? 이 대갈통 나쁜 친구들아.

하긴 지하철 만든 사람들이야 지하철을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겠지.

우리 늙은 어머니 말씀 좀 잊지 말아 주쇼. 우리가 낸 세금을 좀 짭짤하게 써주쇼. 허리 휘도록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낸 거요. 돈 쓸데없어서 낸거 아니란 말요.

『창문에 구멍 꼭 내고 자거라.』

어머니가 이렇게 당부했다. 연탄 때는 집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기름보일러라 그런 걱정 않으셔도 돼요.』

『그거 잘 터진다드라.』

『그 근처에도 안갈께요.』

『공부 너무 하지 말거라. 눈 나빠져서 안경 쓰고 다니면 위험한 거여.』

『알았어요.』

『앉아서 구만리 보는 게 너도 알겨. 취직해서 돈 번다고 사쎄 치마꼬리 잡고 앉아서 퍼질러 댔다간 이 에미 콱 죽고 만다. 너 하나 믿고 이 모진 목숨 못끊고 이날 이때껏 살아온겨 알지?』

『그럼요.』

『저놈 대답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 색시하고 벌써 눈 붙은 거 아녀?』

다혜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도 눈치는 있어서 다혜 얘기를 미루고 있는 것 같았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아직도 한시간 가량이나 남아 있어서 내가 겪는 고통이 더 커 가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붙들리기만 하면 듣는 잔소리였다. 좀 심통궂궂 들었다간 느이 에미가 어떻고 느이 애빗놈이 어떻고 젊어서 느이 집으로 시집이라고 와가지고 이날 이때껏 호강을 한번 해봤나. 입성(옷)을 제대로 해왔었냐, 건전이(반찬)를 제대로 해서 밥을 먹었냐며 넋두리를 늘어놓게 마련이었다.

색시는 튼실해야지 엉덩짝이 작으면 새끼를 못낳는대
며느리가 반반하고 이쁘면 집안을 귀신 씌우는 거래

『아까 그 색시 어때셨어요? 참하고 이쁘죠? 요새 그만한 색시 없어요. 순종 잘하게 생겼죠?』

온주누나가 본격적으로 내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쁘기는 하더만. 만식이 그러는데 동갑내기는 사내를 아삭아삭 파먹는 거라누만.』

둘러붙일 만한 걸 찾은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상관예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안따져요.』

온주 누나가 치고 들어갔다.

『여성 둘게 따로 있는겨?』

매서운 한마디였다.

『재 하나 믿고 사는데…동갑내기가 들어앉혀서 사내를 아삭아삭 파먹으면 청승과부 며느리 끼고 살란 말여?』

어머니는 논리적이었다. 어머니 위주의 타당성이었지만 거역할 수 없게 단호했다.

『어머니, 그런 거 요즘은 안따져요. 사람만 괜찮다면 한번 더 생각해 봐요.』

내가 은근하게 거들고 나섰다.

『색시는 그만하면 참해 뵈더라. 그런데 너무 말랐어. 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픈 데는 없대지?』

온주 누나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네.』

마지못한듯 온주 누나가 대답했다.

『엉덩짝이 작으면 새끼 못나. 삼신할미가 들어 앉을 자리도 없게 옹하게 생겼더만. 그저 우리집 며느리는 복스럽고 부모 섬길 줄 알고 튼실해야 돼. 재 하나 뿐인걸. 내 자식이 돌만 돼도 날찬날찬한 며느리 얻지. 돼지도 미자바리 생긴 거 보고 산다구. 며느린 그저 퉁하고 말없는 샥시라야지. 그렇게 곱살스럽게 이쁘면 집안에 귀신 씌우는 거랴.』

마치 남의 말 하듯 했다.

『어머니, 그래서 싫으시다 이 말씀예요. 자식 하나 있는 거 장가는 안보내실 거예요?』

『왜 안보내? 누가 안보낸데? 이 에미가 더 급해 이놈아.』

『그럼 그 색시 그대로 정하고 내려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니놈 맘대로 해라.』

잘라 말하고 오렌지 주스를 홀짝홀짝 마셨다. 저러다 통곡이라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색시가 이뻐야 어머니 손자들도 이쁘잖아요?』

내가 장난삼아 말을 던졌다.

『내 새끼만 다 이쁜겨 이놈아.』

『그게 아니고 본바탕 말하는 거예요.』

『이쁜 년 끝 좋은 거 봤냐? 이쁜 년들 텔레비에 나와서 만날 허구헌 날 울기만 하는 것도 못봤냐?』

『그건 연속극이잖아요.』

『신문두 마찬가지여 이놈아.』

이놈이란 욕을 자주 하는 것이 아까까지의 그 좋은 기분이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기분이 좀 상하면 그 욕을 입에 매달고 있었다.

『이쁜년들 껄떡하면 나 죽었네 하고 신문 나더라. 느이 누나 봐라. 저렇게 수더분하게 생겼으니까 잘 사는겨 이놈아.』

온주 누나가 멋적게 웃었다. 온주 누나를 못생겼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머니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놈아, 그런 여수(여우) 같은 지지배를 뽕구녀도 벌 수 없는겨. 징상하게 홀라당 벗구 서있는 년들 사진 봐라. 활동사진 봐두 그렇구. 느이 애비 꼴보구두 그래? 반반한 년들 쫓아다니다간 피 토하고 인내장(저승)에 뽕팔려(죽음) 가는겨. 애비는 닮지마야지 이놈아.』

온주 누나가 그만 두라고 내게 눈을 찡긋거렸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어머니가 쉽사리 양보할 사람은 아니었다.

어머니 표현이 틀린 전 아니었다. 텔리비전의 연속극 속에는 정말 어머니 표현대로 이쁜 년들만 올게 만들어져 있었다.

개성있는 연기자보다는 얼굴 잘생긴 연기자만 대접받는 풍토가 어머니 입으로 반증이 되는 것이었다. 텔리비전 연속극의 한계는 빤히 드러난 셈이었다. 개성있는 연기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연속극은 몇십년이 가도 그 모양 그 꼴일게 빤했다.

하긴 신문도 이쁜 여자나 부잣집 여자들이 죽으면 철만난 고기장수처럼 떠벌이지만 보잘것 없는 여자가 죽으면 그러저렁 지나가고 마는 것 같았다.

정 안되면 어머니와 살 색시를 하나 더 얻으면 되잖아
방죽골 里長딸과 얘기됐으니 허튼수작말고 기다려라

『이놈아, 눈 딱 감고 에미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방죽골 이장 딸내미를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허튼 수작 하지말고 울쩍도 말아. 에미가 어련히 알아서 고를까.』

큰일은 났다 싶었다. 어머니가 저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나오면 어머니 사전에 새긴 거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

내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눈물 쏟아내는 데엔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주 누나가 내 팔뚝을 꼬집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했다.

『나 죽는 꼴 볼래?』

그 한마디가 약이었다. 그 말에 당할 재간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의 마지막 무기는 언제나 똑똑한 울음과 나 죽는꼴 볼래였다. 어머니의 눈물과 엄포에 단련이 될 만큼 된 나였지만 언제고 내 여린 가슴을 통렬하게 때리곤 했다. 거역하기 힘든 어머니의 무기였다.

『취직이나 하고 차차 생각해보죠.』

나는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나는 이놈아, 평생 소원이 손자 업고 마실 다니는 거였어, 이놈아.』

어머니는 눈물이 괸 눈으로 코를 훌쩍이며 일어났다. 보따리를 옆에 끼고 온주 누나의 손을 꼭 쥐었다.

『저 어린 걸 맡겨놓고 내 그냥 가면, 어떤머리도 제 놈 잘좀 보살펴야돼. 내 저놈 하나 믿고 사니까.』

『알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마세요. 착하니까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두 저놈이 뻑하면 버선발로 뛰어가도 즈이 애빌 닮아서 그런지 애간장 다 녹는거 모르고 도망가는 때가 있었지. 핏줄이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저놈 꼴 보려고 내 못죽고 산다우.』

『걱정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있을께요.』

온주 누나가 어머니 팔을 잡고 앉혀 줬었다. 마치 모녀 같았다.

『우리 딸 하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도 외로워서 어머니 처럼 모시려고 그랬어요.』

『저놈을 친 동생처럼 살펴줘. 나 정말 저놈 없으면 안살았어.』

『알아요 어머니.』

『저놈 바람 들거든 벽장부터 조심혀. 금붙이같은 건 깊게 숨겨두고. 성한 게 없어. 벽장 다 뚫어내고 장롱 죄 뒤져서 즈이 핏줄 아니랄까봐서 냅다 뛰면, 그러고 나면 허랑이니까. 말릴 장사 없어.』

아까까지만 해도 나처럼 착한 아들이 없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어머니였다. 다혜문제로 나온 뒤부터는 속이 상했는지 내 흉을 하나씩 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가출할 때마다 금붙이나 벽장 속의 돈을 챙겨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온주 누나에게 미리 내 못된 성깔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주 누나를 딸 삼자고 제안한 것이고 벽장 조심하라는 것도 온주 누나의 재산피해 보다는 내가 도망가서 옛날처럼 싸움질이나 하고 사고나 저지르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속셈이었다.

기차가 소리를 숨가쁘게 내질렀다. 벨이 울리고 기차는 한발짝씩 걸어나갔다.

어머니는 차창에 기대서 울고 있었다. 달싹거리는 입술 모양으로 보아 난 앉아서 구만리 본다, 여수같은 지지배 조심허라, 온주 누나 말 잘듣고 편지 자주하는 거 잊지마라, 방죽골 이장 딸내미가 보실보실하니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기차가 멀어졌다. 어머니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주 누나와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온주 누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넌 행복한 녀석야.』

『당해봐서 알잖아. 보통 지겨운 게 아냐.』

『나도 저런 어머니가 계셨으면 한이 없겠다.』

『그렇게 되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

내가 어머니 흉내를 내자 온주 누나는 피식 웃었다. 부모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큰 누나의 가슴속에 우리 어머니의 극성스러운 사랑이 짜릿하게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누나, 나 요즘 바람 들었어. 장롱하고 벽장 조심해야 될 거야.』

『그나 저나 다혜 일이 걱정이다.』

『장가는 내가 가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가는 게 아냐. 걱정할 거 없어. 강제로야 못보낼테니까.』

『어머니 하는 걸로 봐선 쉽지 않겠다.』

『다 양보하더라도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잖아. 정 안되면 어머니가 데리고 사는 며느리 하나 내가 데리고 사는 마누라 하나씩 따로따로 얻는 수밖에 없지.』

『얘가, 태평도 하겠다.』

『자주 생각해봐야 골 때린다니까. 잊어버려. 머 생각해봤자 우리 어머니 입은 언제나 묘책이 없으니까.』

『다혜한테 뭐라고 하니?』

나는 그런 온주 누나의 허리를 끼고 걸었다. 온주 누나가 내 팔짱을 끼며 수줍게 웃었다.

『내가 어려서 얘기했듯이 평생 이렇게 누나 옆에서 살까?』

『논다.』

『노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저러니까 정 떨어져서 아예 내 한평생 총각으로 여생을 마칠까 해서 하는 소리야.』

『다혜한테 내가 얘기 다 해줄께.』

『괜히 왜 이래? 개 심장 긁지마. 그러지 않아도 내 심장 박박 긁는 앤데.』

『그럼 뭐라고 하대?』

『어머니가 반승낙했다고 해줘.』

『다혜가 눈치 빠른 애다.』

『별 수 없잖아.』

우리는 플랫폼을 빠져 나왔다. 옛날 같으면 담치기를 해서 입장표 같은 건 사지 않고 돌랑거렸을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엄청나게 얌전해진 편이었다.

언젠가 경복궁엔 간 적이 있었다. 다들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는 표를 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섰다.

『여봐, 표 내야지.』

문을 지키는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나는 못들은 척하고 그냥 걸었다.

『여봐, 표 내야지.』

나는 뒤를 돌아다 보고 거칠고 의젓하게 그리고 인상을 험하게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나 장충찬요.』

표 받는 아저씨가 의아한 듯이 나를 쳐다봤다.

『나 장충찬이란 말요. 몰라요? 이 양반이 취했나. 똑똑히 세계슈.』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뒤도 안돌아다 보고 걸어 들어갔다. 그 아저씨가 머리를 두어번 흔들고는 자꾸 내 뒤통수를 쳐다 보았다.

또 한 때는 시청앞 분수대에다 오줌을 갈기고는 도망오는 교통순경과 골목길에서 펌바질 시합하는 걸 취미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런 그런 치기가 사라져버렸다. 나도 별수 없이 보통사람이 되어가거나 길 들여져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나 먼저 가. 난 오늘 밤에 집에 못들어갈지도 몰라.』

『네가 유괴범을 어떻게 잡는다고 그러니? 경찰도 못잡는 걸.』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잖아.』

『엄씨구. 그래서 오늘 졸업식에서 그 난리를 치렀니? 부끄러워서 혼났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 졸업식이 어디 있니? 보통 뻔뻔한 게 아니드라.』

『나도 우리 어머니 없으면 머는 못사는 놈이거든.』

온주 누나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택시를 타고 달렸다. 어제 밤부터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온숙이가 잘 알아서 처리는 했겠지만 뭐일이 궁금했다. 서여사와 만나기로 한 시간도 거의 다 돼가고 있었다.

온숙이는 자리에 없었다. 엇저녁부터 전화만 걸려왔지 사무실에 들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메모판을 훑어 보았다. 상당한 진전이 엿보이는 메모들이었다. 김여사 주변의 인물들을 거의 동시에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충 정리해놓고 H호텔로 달려갔다. 서여사가 어떤 표정으로 기다릴까?

<다음호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식 자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학,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800 MISSISS.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 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치 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流星의 賦 <33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⑤

홍계남은 병조에 출두하여 배치를 받을 요량이었는데 이영이 한사코 말렸다.

『홍공은 한성에 머물러 있다가 상감을 지키는 일을 맡아야할지 모른다. 지금 총망중에 나갔다간 방책도 계략도없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날지도 모르지. 자숙하고 때를 기다리는것이 좋겠다』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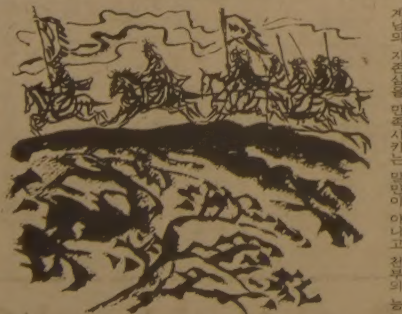
그런데 이일(李鎰)이 순변사(巡邊使)의 임명을 받았는데도 군사가 모이지않아 떠나지못하고 있다는소식을 듣고 계남이 자원(自願)하려고하자, 이영은 정색을하고 나무랐다.

『내가 홍공의 충국(忠國)을 그릇되게 하기 위해 말리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오늘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해를 끌지 모른다. 지금 당장 서둘러 죽을 것이 없지않느냐. 죽길 겁내는 것은 무인의 그릇이 아니겠지만 헛되게 보람없이 죽는것은 마땅히 겁내야 하는게 무인의 도리로 안다. 내가 홍공을 말리는 것은 충국을 하되 보다 보람있게 하게 위해서다. 홍공만한 인재란 이나라에선 희귀하지 않는가. 동량지재로써 장작으로 쓸 순 없다』

진정 이영은 계남의 생명을 아끼는 뜻으로서만 만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임금이 몽진이라도 할 경우 그를 임금의 측근에 붙여 그 막중한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게 하는 동시, 억울하게 생애를 끝내게 될지도 모르는 아까운 인재가 응분한 예우(禮遇)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동량지재(棟樑之材)를 장작으로 쓸순 없다는 말은 계남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말만이 아니고 천부의 능



력을 인식케 하는 교훈이기도 했다.

계남은 복잡한 감정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전쟁의 경과에 신경을 썼다. 그러던 차 상주에서 이일이 패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이일은 10년 전쯤에 경원부사(慶源府使)로 있을 때 호인(胡人) 이탕개(尼湯介)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함경북병사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용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일이 순변사로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성사람들은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터였다.

병정을 모을 수가 없어 몇몇 종사관(從事官)만을 데리고 내려간 사정등을 감안하면 기대하는 편이 무리지만 워낙 명성이 높았던 장수이고 보니, 지푸라기에게라도 매달리겠다는 물에 빠진자들의 심성이 되어있던 처지로선 억지로라도 기대를 걸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순변사로서 내려갔다고 듣자 마자 패투했다는 소식은 한성의 주민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구나 이일이 문경에서 써 보냈다는 장계(狀啓)가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唯有死而已」(금일지적 유사신병 무인감당 신유유사이이)」었다고 하니 절망할만한 일이다.

아무리 위급이 닥쳐도 수백리 밖에서 있은 일에 대해선 「설마」라는 감정이 끼인다. 이처럼 설마, 설마하고 있었던 터인데, 그 설마가 용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사정이 확실해진 것이다.

한성의 인심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묘당(廟堂)에선 피난해야한다는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 도대체 이일은 어떻게 패배했단 말인가.

주식회사 이훈모 부동산
57 Cummer Ave.
(B)225－1204,
(R)636－1697
(휜치써브웨이 근처)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가족처럼 함께 가게일을 돌볼 여자분 구함. 침식도 제공.
☎ : 1-727-3721

점심시간에 파트타임 Kitchen Helper 구함.
(오전11시~오후2시 Mon.—Fri.)
☎ : 421—6016 (오후2시이후 연락바람)

입주하셔서 3살된 아이와 가사를 돌봐주실분 구함.
신원 확실하신분.
☎ : 793—5531(부라말리지역)

입주하셔서 애기(5살, 1살, 6개월) 봐 주실분 구함. 돈·밀지역.
☎ : 429—6838(R), 499—4459(B)

출퇴근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오후 5시 이후 연락바람. (돈·밀지역)
☎ : 749—4061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아파트
주매상 : $4,000 재정명세서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져 함.
☎ : 783—5161(Cliff or Joe)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가게급매
가격 47,000불 + 스탁
☎ : 1-877-6463, 883-4550 Mr. 김

①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②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
요구액 : $32,000
③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외국인이 경영하는, 플라자에 위치한 타번(Tavern)
레스토랑 급매 주6일영업, 주류면허있음.
아스킹 : $30,000 ☎ : (B)742—0196, (R)243—8079

테이크 아웃(피쉬, 칩스, 버거스)짧은영업시간
GOOD FOR CHINESE FOOD(스카보로지역)
렌트 : $650 리스 : 11년 ☎ : (B)299—1713(R)438—9899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년매상 $150,000이상(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익)
—가격은 면담후 결정함.
—토론토에서 약 70마일거리로 Mall안에 있음.
—사업은 보장됨.
—개인사정으로 좋은 가격에 급매코저 함.
360 George St. N. Peterborough ONT.
☎705—743—3152 Mr. 유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크레딧·카드를 使用하세요.
한국일보의 広告料金 및 購読料는 여러분의 便利上 VISA나 MASTER CHARGE를 利用할 수 있읍니다.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 환영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가구달린 베드룸 세놓음
독신자 환영(월 $200)
565 PAPE AVE. ☎ : 439—7093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주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홀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A.E. LEPAGE(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유북영)
☎ : 762—8255 West 지역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2ND CLASS MAIL NO. 5248